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동주 시의 교수학습 연구
- 성장시의 관점에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하 나

논문개요

본고는 시인 운동주의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운동주 시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어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자, 활동, 수행성’ 중심의 편성에 맞추어 시 교육을 학습자의 정체성 맥락과 연결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동주의 시에는 작품마다 각각 작시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성장기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의 탄압이 가장 심했던 1930~40년대를 살아야 했던 운동주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외적 갈등과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자아성숙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운동주는 이러한 갈등을 자신의 작품에 나타냄으로써 통과 제의적 기능을 내포하는 시작품을 창작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는 내면적인 성숙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장시라 할 수 있는데, 성장시는 자기형성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체험과 함께 현대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기르고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존재를 기른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문학 교육이 개인의 문학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활동을 기르는 사회화 과정의 한 방안인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시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며, 시를 통한 문학적 체험이 학습자의 삶과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자기 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아 찾기와 더불어 살기”라는 성장시의 목표와 개인 윤리 의식을 지향한 운동주의 성장시는 자아인식의 함양과 함께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운동주의 작품은 ‘성장시’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이나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비롯한 공동 사고 및 협동 과정, 합리적 문제 해결력 등의 인성 교육적 요소를 포괄한 교수-학습 원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운동주 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아버지 찾기’의 모티브로서 사회화 과정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운동주 시의 저항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둘째, ‘길의 발견’이라는 모티브로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길’을 소재로 교육 연극하는 방안과 함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과 사랑의 인식, 정체성 모색’의 모티브로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육 목적에 따라 운동주의 시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5
3. 연구 방법.....	10
II. 윤동주시의 성장시적 특성.....	18
1. 아버지 찾기의 여정	19
2. 성과 사랑의 인식	31
3. 길의 발견과 정체성 모색	38
III. 윤동주 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	62
1. 윤동주 시의 교재 수록 현황과 특징.....	62
2. 사회화 측면에서 교수-학습.....	66
3.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79
4. 인성교육 측면에서 교수-학습,.....	98
V. 결론,.....	110
참고문헌,.....	131

부록1. 1930~40년대 사진, 윤동주 사진 자료

부록2. 저항성 토론 자료

부록3. 비판적 글쓰기 자료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Dongju Yoon's poems – from the viewpoint of a initiation poem

Hana Ki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poet Dongju Yoon's works effectively,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a plan for promoting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in an educational field based on the existing academic research results from his poems. Its purpose is to seek how to learn in which learners can have literary ability themselves in connection of poem education with thei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centering on 'a learner, activity, and performance' which is dealt with in the 7th curriculum.

His poems have their individual dates of versification, which show that he began to compose a poem from a growth period when his self began to be formed. In particular, he who had to live in the 1930s and 1940s when Japanese imperialism brought the most severe pressure on Korea had to experience the external conflict that he belonged to colonial people and the internal conflict from his own moral belief in how he should live in the era and from the agony about self-maturity. He pursued personal self-realization by creating poetic works including the function as a rite of passage through expressing the conflicts in his own works. Thus, his poems can be said to be the initiation poems of depicting a process of his internal maturity, which will help students in the stage of self-formation to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modern poems with emotional experience.

The objective for educating the Korean language in the curriculum includes the passage "We foster human beings who cultivat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various men and the world through literature and who internalize human value". It shows that literary education is one plan for socialization process of internalizing personal literature and fostering social activity. Thus, poem education should leadingly promote learners' literary ability, and advance to the direction of cultivating self-reflection and self-formation in literary experience through a poem which is associated with their lives. His initiation

poem aiming at its objective of “seeking the self and living together” and at personal ethic consciousness broadens the awareness of others and the society with the cultivation of self-recognition, and much helps to form mature character. Thus, from the viewpoint of ‘a initiation poem’ his works should present a teaching-learning principle including the elements of humanity education such as common thought and cooperation process and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including respect for the self or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Presupposing it I studied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his poems dividing them into the following three. The first one is a teaching-learning plan centering on the aspect of socialization process as the motive of ‘looking for a father’, in which I discussed the resistance in the poems. The second is a curriculum centering on learners as the motive of ‘discovering a way’, in which I analyzed intertextuality with a plan for performing an educational play with ‘a way’ as material. The final one is a plan for educating self-identity at the aspect of humanity education as the motive of ‘awareness of sex and love, seeking identity’. Now, I try to explor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his poems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Korean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논문개요

본고는 시인 운동주의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운동주 시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어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자, 활동, 수행성’ 중심의 편성에 맞추어 시 교육을 학습자의 정체성 맥락과 연결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동주의 시에는 작품마다 각각 작시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성장기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의 탄압이 가장 심했던 1930~40년대를 살아야 했던 운동주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외적 갈등과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자아성숙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운동주는 이러한 갈등을 자신의 작품에 나타냄으로써 통과 제의적 기능을 내포하는 시작품을 창작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는 내면적인 성숙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장시라 할 수 있는데, 성장시는 자기형성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체험과 함께 현대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기르고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존재를 기른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문학 교육이 개인의 문학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활동을 기르는 사회화 과정의 한 방안인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시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며, 시를 통한 문학적 체험이 학습자의 삶과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자기 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아 찾기와 더불어 살기”라는 성장시의 목표와 개인 윤리 의식을 지향한 운동주의 성장시는 자아인식의 함양과 함께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운동주의 작품은 ‘성장시’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이나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비롯한 공동 사고 및 협동 과정, 합리적 문제 해결력 등의 인성 교육적 요소를 포괄한 교수-학습 원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운동주의 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아버지 찾기’의 모티브로서 사회화 과정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운동주의 시의 저항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둘째, ‘길의 발견’이라는 모티브로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길’을 소재로 교육 연극하는 방안과 함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과 사랑의 인식, 정체성 모색’의 모티브로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육 목적에 따라 운동주의 시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5
3. 연구 방법.....	10
II. 운동주시의 성장시적 특성.....	18
1. 아버지 찾기의 여정	19
2. 성과 사랑의 인식	31
3. 길의 발견과 정체성 모색	38
III. 운동주 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	62
1. 운동주 시의 교재 수록 현황과 특징.....	62
2. 사회화 측면에서 교수-학습.....	66
3.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79
4. 인성교육 측면에서 교수-학습	98
V. 결론	110
참고문헌	131

부록1. 1930~40년대 사진, 운동주 사진 자료

부록2. 저항성 토론 자료

부록3. 비판적 글쓰기 자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제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¹⁾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학교육은 이렇듯 일차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목표로 문학과 더불어 즐기고 깨달음을 얻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 날 문학교육의 현장에는 염려스러운 관행들이 있다. 특히 시 교육은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 즐겨 배우던 동시와 비교하여 갑작스럽게 수준이 높아진 시 내용으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행성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지도방향은 여전히 입시제도 위주의 문법적 지식이나 어려운 단어, 구절풀이, 관행적인 배경 지식 등의 설명에 머물러 있어 시를 청소년 자신들의 생활 현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삶을 알아가고 세상에 눈 떠가는 시기이다. 하지만 넓은 세계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지는 반면 현실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제약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억눌린 심적인 압박, 이기주의, 자아 혼란,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관습들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제도와 사람들과 부딪치며, 크고 작은 갈등들을 품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필요한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업의 기준치를 달성시키는 일보다는 상처 많은 청소년 시기, 현명한 판단

1)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1997) p. 303.

을 거들어 줄 수 있는 일련의 정서적인 교류에 관한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성이 풍부하고 생각도 복잡하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와 직결 될 수 있는, 공감 할 수 있는 시 제재를 선택해 교육시키는 일이 요청되는 바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수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²⁾ 이를 위해 시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학적 체험이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기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 청소년 시기의 교육으로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과 다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청소년은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읽어내는 독자이면서 교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문학교육은 일반 독자를 위한 문학교육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첫째,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어야 한다. 학습독자로서 청소년은 교육의 의도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교육적 목적에 따라 삶과 행동이 통제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문학교육은 문학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게 된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를 직접 다룸에 있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은 청소년을 어른의 축소판이나 불완전한 성인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보는데서 시작한다. 어른들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본성, 즉 청소년들의 삶의 주

2) 선주원, 『시 교육의 원리와 방법』(박이정, 2003) p.12.

요 흐름이나 의미 등에 대해 청소년의 정체성을 담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향유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향유할 수 있는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³⁾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지어 가치를 평가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를 하고, 다양한 방식의 시 읽기 지도를 통해 시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주 시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기존의 운동주 시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지를 고찰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답고 친근하면서도, 학생들의 문학적 흥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운동주의 시를 그들의 성장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시’의 관점에서 올바른 시 교수법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중, 고등학교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시인 운동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라면 운동주는 몇 명의 시인과 함께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시인이다. 특히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응시와 자기 성찰을 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성장이 자아실현에 이르는 길”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면,⁴⁾ 그는 ‘성장의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시는 일일이 창작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은 이후에서야 세상에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시를 쓰되,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마치 일기를 쓰듯 홀로 기록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적 삶을 볼 때도 운동주는 자아가 형성되는 성장기에

3)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p.79~81 참조.

4) 김대행의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1999), p.277.

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의 시는 무수한 시련을 거침으로서 변화하게 되고 성숙한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 제의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고독한 개인의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성장시'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⁵⁾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학이란 본래 현대 사회의 가치관 혼란 가운데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간에게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촉구하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결에 접근하도록 해왔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통로였으며, 가치의 공동 소통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왔다.⁶⁾ 따라서 "자아 찾기와 더불어 살기"라는 성장시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고, 개인 윤리 의식을 지향한 운동주 시의 주제와도 연관되는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성장시를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수법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작품을 읽는 주체와 작품, 작품을 쓴 주체와 작품을 읽는 주체, 작품과 맥락, 주체와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수-학습 원리는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성장시'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학습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나 자아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공동 사고 및 협동 과정, 합리적 문제 해결력 등의 인성 교육적 요소를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육목표 중 하나인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기르고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존재를 기른다"는 목적에 따라 운동주 시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둔다.

5) 박의상, 「운동주 시의 사회심리학적 논거-자기화과정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6) 최영한,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사, 2003) p.376-377. 참조.

2. 연구사 검토

1948년 1월 윤동주(1917~1945)의 유고 31편을 모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정음사) 초판이 나온 이래 그에 대한 연구는 논문 이외에도 비평적 담론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있다. 그에게 바쳐진 크고 작은 글들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단행본으로 82건, 학위논문으로 237건, 학술지로 324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보아 윤동주는 논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윤동주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작가론으로서, 윤동주의 시사적 위상에 대한 종합사적, 문학사적 연구와 시인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접근 연구, 윤동주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 의의를 다룬 연구로 나뉜다. 두 번째는 작품론으로서 주제와 형식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해본 연구가 있으며 주제별로 저항성 유무에 대한 연구,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연구와 동시 연구, 작품시기에 따른 시작품의 경향과 그 특성 연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동주 시인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본고는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이 방향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90년대에 들어 교육대학원을 주축으로 해서 윤동주 시인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교육방법론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다양한 시 교육 지도 방법의 하나로 권명숙⁷⁾은 논문에서 윤동주의 작품 <서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다운 시 맛보기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효과적인 시 맛보기 지도로 토의식 수업 방식을 활용하여 직관에 의한 전체 맛보기, 구체적 느낌정리를 통한 부분 맛보기, 머그림을 떠올리며 작품

7) 권명숙, 「시 지도 연구: 윤동주 지음 <서시>를 대상으로」(인하대 교육대학원, 1994).

의 속뜻을 생각하며 깨닫기, 시적감동이 지속되어 저절로 외워지는 되살리기를 통해 각각의 단계에 맞는 시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염창권⁸⁾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인식을 보여주었던 여섯 시인을 선정, 그들의 시에 나타난 길과 집, 그리고 보행과 거주의 양상을 통해 공간 표상을 구조화시키고, 한국 현대시 교육에 적합한 원론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는 특히, 운동주 텍스트인 <길>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1차 단계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의한 지시적 의미 파악, 2차 단계에서는 시인의 세계상을 공간구조를 통하여 해명하는 단계, 3차 단계에서는 시대, 역사적 맥락 하에 시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세계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속성의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하윤정⁹⁾은 교육연극 이론을 바탕으로 시 교육 모형을 고안하고 시 수업에 직접 적용을 하였다. 그는 시 교육의 수업 단계를 1. 환경 조성하기로서 교실 공간을 극적 가상공간으로 바꾸는 단계, 2. 시 낭독하기로서 화자와 동일시된 상태에서 연행처럼 낭독을 하는 단계, 3. 작중 상황 연행하기와 4. 이미지 연행하기로서 상황과 이미지를 정지장면과 즉흥극과 같은 교육연극 기법으로 표현하는 활동하는 단계, 5. 시로 드라마 만들기와 6. 시창작하기로서 소극적인 감상을 넘어서 적극적인 재창조로 확장시키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특히 운동주의 시 <길>을 텍스트로 하여 시 속 상황을 직접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각 활동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그대로 기술하고 수업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모형 적용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황경해¹⁰⁾는 고등학교 시 교육에서 논의되는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인들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작가별 이미지의 특질 및 교수 학습 방향점

8) 염창권, 「한국 현대시의 공간구조와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4).

9) 하윤정, 「교육연극을 활용한 시 교육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10) 황경해,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을 모색했다. 그는 특히 운동주의 작품 속에 구현된 ‘별’과 ‘천상’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별’이 주는 서정성 상징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천상’, ‘자연’의 이미지가 수많은 상상력과 원형적 상징성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 속의 서정적 자아의 내면에 형상화된 ‘별’과 조우하면서 다양한 상상력과 의식의 확장 속에 놓일 수 있게 감각적 이미지의 변용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들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 정리하고 문학 교육적 접근 방법 과 문학 교육적 의의를 모색하였다.

박수경¹¹⁾은 운동주의 ‘저항성 논의’에 대한 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운동주의를 ‘저항시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판단, 운동주의 자아성찰이 잘 드러난 「참회록」과 함께 운동주의를 ‘저항시인’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 그리고 그에 반하여 씌어진 「비평문」을 학습독자에게 함께 제시했다. 또한 학습독자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느끼고 있는 자기반성, 삶의 무게 등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일본에 살던 운동주의를 그리며 기노시다 나가히로가 쓴 「운동주의를 위한 네 개의 단장」을 제시하며 시적 화자에게 편지 쓰기를 시행했다. 또한 서로 다른 작품인 김수영의 「눈」과 운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 고찰하는 활동도 제시하였다.

박수범¹²⁾은 「수행평가를 통한 시 교육의 의의와 실제」에서 김소월과 운동주의 「길」을 서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그는 수행평가에서 한 어휘가 작가와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쓰이는 예를 알아보고, 그 차이점이 제시된 작품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시의 제목, 시어, 내용 등을 통해 ‘육첩방’으로 대표되는 운동주의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시적 자아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

11) 박수경, 「현대시 교육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아주대 교육대학원, 2000).

12) 박수범, 「수행평가를 통한 시 교육의 의의와 실제」(고려대 교육대학원, 2000).

고 있는 지 말해보는 활동을 시행했다.

김용진¹³⁾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기독교 영향 관계에 있는 시문학 작품을 알아보고 기독교 문학과 문학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폈다. 특히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윤동주와 김현승 시작품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 구원의식이 시에 반영된 모습을 살펴보고 죄를 인식하고 거듭남의 과정과 구원의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시를 학습할 때는 그것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다. 따라서 문학 수업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사상적 교리적 배경 설명이 가능하기에 기독교 문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동찬¹⁴⁾은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윤동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 교육 방법론을 모색했다. 그는 각각 개별 텍스트에 대한 분편적 이해와 감상에 그치는 수업 방식을 지양하고, 윤동주 시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텍스트성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 내용은 2개씩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보편적 인식구조를 탐색하는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중심의 접근법과 텍스트를 시인의 삶과 관련시켜 감상하게 한 후 학습자로 하여금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추체험 과정에 몰입하게 하는 비평적 글쓰기의 학습자 중심의 접근방법, 그리고 ‘저항성 여부’를 주제로 하여 학습자가 토론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민족과 개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의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김세례¹⁵⁾는 윤동주의 시에 대해 역사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비평

13) 김용진, 「기독교 문학과 문학 교육 연구: 윤동주와 김현승 시 작품을 중심으로」(단국대 교육대학원 2005)

14) 장동찬, 「윤동주 시 교육 방법론 연구」(연세대 교육대학원, 1999)

과 객관주의적 분석 비평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의 의견을 비교 대조하여 정리하고 과연 운동주의 시를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밝혔다. 또한 그의 작품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작품을 동시와 자유시로 개관하여 작품의 경향을 밝히고 문학 교과서에 실린 운동주의 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지고 있는 지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했다.

정린다¹⁶⁾도 논문에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 실린 운동주 시의 수록 현황을 파악한 후 그의 시가 어떠한 단위 목표와 제재의 교수,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수록되어 있는지 두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들을 비교하고, 운동주 시를 효율적으로 교수, 학습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운동주의 작품 중 「길」, 「십자가」,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를 중심으로 수업활동을 1. 기 본적 지식의 습득, 2. 시 작품의 감상, 3. 시 작품의 비평, 4. 시 작품의 창작 연습 등의 순서로 나누어서 시 수업에 적용될 만한 수업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주 시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교육 이론의 활발한 전개와 현장 교수 활동의 실천적 모색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에서조차도 중고등학교 ‘성장시’ 수업 모형에 대한 교육적 고찰은 그 성과가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야 한국문학에서 새롭게 성장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성장소설이 문학교육의 제재로 활용되거나 통과 의례적 시각에서 시를 바라보는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성장시에 대한 논의는 개념 규정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장시의 관점에서 운동주의 시를 바라보는 최초의 시각을 박의상의 논문 「운동주의의 사회심리학적 논거- 자기화지향

15) 김세례, 「운동주 시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 (창원대 교육대학원, 2005).

16) 정린다, 「운동주 시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을 중심으로」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는 운동주의 시가 1930~40년대 일제 강점 최악기를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우리 젊은이들의 주변인적 상황과 정신적 방황, 갈등을 보여주면서도 순결과 자기 성숙의 자기화를 지향하는 삶을 추구함으로서 성장시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장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발견 할 수 있는 논문은 기형도, 이상,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바라본 남민우의 학술논문 「현대시교육과 성장시」이다. 그는 성장시의 개념과 범주의 필요성을 들며 성장시의 문학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성장시의 개념을 설정하고 성장의 변증법의 과정으로서 성장의 동일시 측면에서 운동주의의 특징을 바라봄으로서 교육적 의미를 찾아내었다. 이에 본고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성장시’의 개념에 의거,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 운동주 시인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교육 방법론과 ‘성장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 고등학교 국어, 문학 수업시간에 ‘운동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교육 방법론의 다양한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주의 생애가 짧았던 것을 생각하면 문학적으로도 그의 시가 풍부한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생애 또한 시대적 문제와 연관하여 큰 의미를 주고 또한 교육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성장시’ 관점에서 고찰한 교육 방법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는 운동주를 대상으로 실제 문학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시’ 감상 모형의 확립을 목표로 진행하겠다.

3. 연구 방법

「운동주 시 교수법 연구」에 앞서 우선 연구사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학사에서 성장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성장소설 논의는 성장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고 담고 있는 작품¹⁷⁾들을 가리킨다.

또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많은 논문에서 대략 6개의 성장모티브를 설정하여 성장소설의 서사구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그것은 성에 눈뜸, 환멸과의 만남, 죽음의 인식, 악의 체험,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이라는 성장소설의 모티브이다.¹⁸⁾ 시 역시 소설 못지않게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갈래이기 때문¹⁹⁾에 성장시의 범주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성장 소설의 6가지 모티브들은 그 원천을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본능에 두고 있다. “성의 눈뜸”,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은 ‘찾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살아 움직이고 발견하려는 ‘삶의 원리’하에 있다. 반면에 “죽음의 인식”, “환멸과의 만남”, “악의 체험”은 ‘잃어버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소멸해 가는 ‘죽음의 원리’하에 있다. 즉, 삶의 모티브와 죽음의 모티브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인간 성장의 주요한 관문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⁰⁾

17)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241.

18)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2).

19) 김윤식, 「문학장르와 인종사의 의미-서정양식과 서사양식의 지향점」,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p. 496.

20)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운동주 시에서 삶의 모티브는 현실참여적인 시편들과 관련하여 창작되고 있고 죽음의 모티브는 종교적 시편들과 관련하여 창작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중 환멸과의 만남, 죽음의 인식, 악의 체험의 모티브는 일련의 성장소설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나 운동주 시에서는 많은 부분이 운동주의 성장 과정에서 육화된 기독교적 세계관과 맞물려 위의 세 모티브가 종교적 의미 찾기에 중심을 두고 변형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성장 과정의 내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에 의한 지향점을 모색하는바 운동주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요 바탕으로 한 위의 세 모티브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장소설의 세 가지 측면 “아버지 찾기, 성의 눈뜸, 길의 발견’에 주목하여 ‘성장시’로서의 의의를 추론해가고자 한다.

운동주는 생애사적으로도 28세에 요절함으로서 개인의 실존적 차원에서 ‘청년적 경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작시한 연, 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후 차례대로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성장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의 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 산문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시행의 종결이 대부분 동사라는 점²¹⁾은 이러한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는 ‘유년기로부터 청년적 경험세계까지의 내면풍경, 즉 성장기 의식 세계의 발전 및 심화과정을 드러내고²²⁾ 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주 시의 이러한 특징은 학생들이 성장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운동주 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앞서 먼저 운동주의 성장시적 특징의 시세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의 성장시적

21) 마광수, 『운동주 연구』(정음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4.) p.156.

22) 남민우, 「현대시교육과 성장시」(국어교육학회, 2003) p152-153 참조.

특징으로는 성장 소설 모티브 중 3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우선 첫째는 성장 소설의 본질인 “부계의 원리: 아버지 찾기” 모티브로서 운동주가 성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에 관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운동주의 생애사적 자료와 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가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성에 대한 의식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는 “성의 눈뜸”모티브이다. 불특정한 대상인 ‘순이’를 화자로 한 세편의 시를 통해 성장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아픔과 성숙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겠다. 즉, 운동주 시에 나타난 운동주의 사랑과 이별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셋째는 성장 모티브 중 마지막 “길의 발견” 모티브에 대해서 고찰해보겠다. 동시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유년기의 모습에서부터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부터 겪게 되는 시창작의 고민, 조국 상실이라는 현실 속의 갈등과 민족의식 등을 운동주 시의 ‘길 찾기 의식’를 통해 알아보겠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찾기’라는 성장 소설적 주제와 함께 ‘길 찾기’를 어떻게 언어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어 운동주 시가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과정과 현황을 파악하겠다. 그런 다음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시 「별 헤는 밤」, 「쉽게 씌여진 시」, 「참회록」, 「십자가」, 「서시」를 중심으로 그의 시가 어떠한 단원 목표와 제재의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수록되어 있는지 출판사에 따른 문학교과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문학교육은 일차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성장의 모든 계기는 상호작용에 있다. 이처럼 문학교육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결부시킬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삶과 문학이 연관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문학이

어떤 작용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학교육이 모색해야 할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이다.²³⁾

이와 같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화’는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예술 작품의 심미안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있는 정서인 도덕적 자율성, 정직성, 탐구정신, 법과 질서의 존중 등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별 덕목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화되고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 영역과는 대별된다.²⁴⁾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가 추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라는 문학의 효용 개념은 이미 인성 교육에서 요청하는 문화와 사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인성적 가치에 매우 근접하게 닿아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²⁵⁾

따라서 성장시 교수법의 방안으로서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성장시 의의와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화’의 문제를 바탕으로 운동주 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시인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여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의 ‘자기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운동주 시 「길」을 놓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어 문학의 생활화에 따른 인성 교육의 교육적 실천 측면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고를 마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화’ 측면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의 접근 방법을 이용한다. 그동안 운동주 시 연구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저항성’ 여부를 주제로

2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277~280 참조.

24) 최영한,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사, 2003) p. 375 참조.

25)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사, 2005) p. 112 참조.

하여 저항성 논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가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비평적 쓰기 활동을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당대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민족과 개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서 학습자의 인식과 판단을 심화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일제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고독하고 내면적인 한 시인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한다.

둘째, ‘자기화’ 측면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운동주 시의 「길」을 주제로 수업 모형을 협동 학습에 적용시켜 텍스트에 나타난 시인의 문제 해결 과정과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교육연극 수업 모형을 짜서 그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다른 시인과 상호 텍스트성의 원리에 따라 성장시의 주된 모티브로서 「길」 주제로 한 시를 비교 분석하며 운동주 시와 「길」을 소재로 한 시에 나타난 의식 구조를 탐구함을 목표로 삼는 접근 방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시 교육의 대안적 결론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성 교육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운동주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인성 교육의 교수 학습 전략에서는 직접적인 인성 교육 모형과 통합적인 인성 교육 모형을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인성 교육 모형을 선택해서 운동주의 성장시와 성장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를 함께 제시하여 시 감상과 함께 노래 가사를 확인하면서 어떤 변용이 일어나는 지 살펴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미술사에서 ‘자화상’을 주제로 한 그림들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비교해보고 시로 표현해보며 감수성을 길러주는 활동을 한다. 이어 개인-가족-친구-사회로 확대되는 ‘관계’ 모형에 따라 자전적 서사쓰기 활동을 하는 독자 반응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각 개인에게 내면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따른다.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쉽 없이 외적으로 많은 관계 속에 얽히고 얽혀 실타래같이 복잡한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내면이란 자아의 외침만이 들리는 진공상태여서, 외부의 갈등에 맞서는 건 결국 혼자만의 시련 속에 좌절과 패배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의 반복과 다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장의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혹독한 식민지 치하에서 외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위해서 싸운 운동주는 학생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개발한 시 수업모형이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발달과 인성 교육에 도움을 주고 시 감상능력을 신장시켜 일상생활에서도 시를 즐겨 읽은 태도를 가지게 한다면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학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 교육방법론의 하나로 기여하는 바를 발견했으면 한다.

II. 운동주 성장시 특성

성장소설이란 주인공이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에 이르는 사이에 문화적·인간적 환경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로, 주인공 내면의 형성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문학작품은 시의 영역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시들을 가리켜 ‘성장시’라고 한다. 성장시는 본능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존재가 인지 및 정서의 발달에 따라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 가’라는 가족내적,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한다.²⁶⁾ 운동주의 시는 기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내면화를 지향하는 작품으로 성장의 정신적 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시에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고뇌가 담겨있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는 보편적 이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성장시라 할 수 있다.

남민우는 그의 논문 「현대시 교육과 성장시」에서 성장시의 문학 교육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첫째, 성장시는 성장 과정 중인 학습자의 정신세계, 내적 갈등의 특성들을 공유한 주인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시적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시를 읽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성장시적 관점은 학습자들에게 시를 지적 학습의 대상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적 내면 풍경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시의 주인공은 자신의 불안 의식을 각성의 계기로 하여 의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주인공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로써

26) 남민우, 「현대시교육과 성장시」(국어교육학회, 2003) p. 148

성장시는 학습자가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데 정서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셋째, 성장시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과 동일시할 가치를 지닌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성장시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 내에서의 역할을 비롯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장의 종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 차원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장의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²⁷⁾

이러한 특징을 내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성장시는 문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언급되는 ‘개인적 성장’을 고려해 볼 때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에 속하지만, 성장시의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장 소설의 경우 그에 관련한 많은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소설 속 주인공의 “건강한 유년기적 자아의 조화로운 성장”,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왜곡된 성장”, “성의 체험과 죽음의 인식”, “길의 발견”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장소설에 관한 많은 논문에서 주인공이 “아버지 찾기”나 “아버지와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방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로, 한 자아가 성장하는데 있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그 첫 번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²⁸⁾ 그렇다면 성장문학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성의 원리가 성장시를 이루고 있는 운동주의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7) 위의 책 pp. 180~182 참조

28) 김윤식, “유년시절을 그린 두 개의 소설”,(「사상계」, 1970. 3. 통권 제 203)

1. 아버지 찾기의 여정

프로이드는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의식은 경쟁과 존경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아버지에 대한 경쟁으로부터 존경으로의 인식의 이행이 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놓여있는 중요한 문턱이라고 보았다.²⁹⁾ 또한 현대 심리학자들은 소년의 ‘아버지 찾기’를 성인식의 일종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친 모자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질서로 편입되려는 현상은 소년으로 하여금 모친에의 의존 욕망을 단절시키고, 부친에의 노골적인 반항을 저지시키며, 사회의 성인으로서의 동화현상”³⁰⁾이라고 하였다. 즉, 아버지 찾이란 소년의 자아추구의 한 단계로 부친에 대한 도전과 화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 찾기는 성장기 소년이 아버지의 힘과 권위에 대한 거부와 반항, 극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가계를 승계하며,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문학작품에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문학작품 속의 아버지 찾기는 성장기 소년이 어머니의 세계로 대표되는 가정을 떠나 아버지의 세계로 대표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주인공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문학작품 속의 아버지 찾기는 주인공의 유년 시절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시의 경우 작가의 내면을 직,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문학 장르라는 점에서 작가의 살아온 체험과 환경은 작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9) 프로이드, 「예술론」, (백조출판사, 1973) p.293.

30) 왕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980) p.143.

운동주는 작품 활동의 동기를 자아의 형성과 세계관의 정립,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가는 과정으로 삼았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담아내고 있는 운동주의 성장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생애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운동주가 태어난 북간도 명동촌은 원래는 농촌 지역이지만, 1900년대에 이루어진 선각자들의 이주로 인해 종교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문물이 영입되어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온 곳이다. 이 곳에서 운동주의 조부 윤하현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 장로로 활동했으며, 운동주의 부친 윤영석은 조상들이 이뤄놓은 경제적 풍요 덕분에 정식으로 신학문을 공부했으며, 18세부터 북경에서 유학생 생활을 시작하였다. 운동주의 모친 김용은 인품과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특히 손재주가 좋았다. 그러나 몸이 약해 평생 건강문제로 시달렸다고 한다.³¹⁾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운동주는 한일합방(1910년)이후인 1917년 12월 30일 만주 북간도의 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 마을의 소지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많은 금기와 실향민의 고장이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북간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라게 된다.

운동주는 어릴 적부터 잡지를 구독할 만큼 문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그가 13세 되던 해인 1930년,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등사판 잡지를 몇 권 펴냈고, 1936년 7월에는 『가톨릭 소년(少年)』 지에 <병아리>, <빛자루> 등 동요와 동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운동주는 조선일보 학생란과 『문우(文友)』 지에 여러 시들을 발표해 어릴 적부터 시에 대한 두터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내비친 운동주는 문과로 진학하려 하지만 의과대로 보내려는 아버지와 마찰을 겪게

31)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 역사, 2004) 참조.

된다.

윤동주는 1936년 평양의 송실중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연희전문학교를 걸쳐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할 때까지 10여년에 걸친 긴 객지생활을 하였다. 1943년 그는 일본에서 독립운동 혐의로 투옥된 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름모를 주사’를 맞고 해방 6개월 전인 1945년 2월 16일 숨을 거두게 된다. 그의 29세라는 짧은 생은 일제의 침략으로 얼룩진 암울한 시기였다.

이처럼 윤동주는 경제적으로는 풍부했으나 고향인 북간도의 긴장감, 기독교적 금욕과 금지, 소심한 부친과의 관계, 독립운동을 한 죄로 후쿠오카에서 옥사한 고종사촌 송몽규의 영향, 성장기의 긴 타향생활, 당시 더욱 심해진 일제의 횡포 등 많은 일들이 그에게 엄격하고 절제된 성격 특성을 갖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간 윤동주의 시에는 작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의 시에는 작시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인데, 윤동주는 이 날짜를 통해 스스로의 의식의 성장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따라서 날짜의 순서에 따라 작품을 살펴보면 윤동주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젓가슴이 그리운
서리 내리는 저녁_____ - 「남쪽 하늘」(1935. 10)에서

좀 있다가
병아리들은
엄마 품으로
다 들어갔지요. - 「병아리」(1936.1.6)에서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 집

- 「고향집」(1936.1.6)에서

어머니!

젓을 빨려 이 마음을 달래어 주시오

이 밤이 자꾸 설워지나이다.

(중략)

철비가 후누주군이 내리는 이 밤을

주먹이나 빨면서 새우리카?

어머니! 그 어진 손으로

이 울음을 달래어 주시오.

- 「어머니」(1938.5.28)에서

위의 시들은 운동주의 초기 작품으로 동시(童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작품에서 화자는 주로 아동의 시점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시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유아 심리적이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한다.

김열규는 운동주의 이러한 동시 취향적인 면에 대해서 심리적 에너지가 현실과의 객관적 유대를 단절한 채 유아기로 퇴행한다고 보았다.³²⁾ 하지만 운동주는 식민통치라는 민족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교육 문제로 인해 어릴 적부터 긴 타향살이를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어머니의 품속과 고향집, 그리고 조국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비애를 절감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동시를 통해 풍요롭고 넉넉한 이상적 삶의 공간인 어머니를 갈망하는 모습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운동주의 시는 화자의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그린 성장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찾기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역할과 등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가끔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무를 팔러 가고’, ‘당나귀에게 짚을 한 키텐 담아주고’, ‘돈 벌러 만주에 계신’ 형상으로 몸도 마음도 멀리 떨어져있

32)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 27집, (1964, 8).

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 부자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윤동주는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의과를 강요하는 아버지와 의 대립으로 단식등 몇 개월에 걸친 심한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유언」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시를 발표한다.

흰한 방에
유언은 소리 없는 입놀림.
____바다에 진주 캐러 갔다는 아들
해녀와 사랑을 속삭인다는 딸아들
이 밤에사 돌아오나 내다봐라_____
평생 외롭던 아버지의 운명
감기우는 눈에 슬픔이 어린다.
외딴집에 개가 짖고
휘양한 달이 문살에 흐르는 밤.

- 「유언」 전문(1937. 10.24)

이 시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주제로 해서 쓴 시로, 희생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 중 아버지는 ‘이 밤에사 돌아오나 내다봐라’라고 하며 애타게 아들들을 기다린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만을 위해 집을 나간 자식들의 이야기에 아버지 됨의 서글픔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윤동주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이때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유언」이라는 시를 통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자신도 언젠가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동주는 모범적인 가족관계와 그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사상 속에서 조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조국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도덕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를 찾고자 했으며, 성장기의 잃어버린 자아의 동일

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동일성의 형성은 ‘세계인식과 자기 인식’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자기 인식의 동일성 문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가 다른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등의 자아의 재발견이라는 문제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자기인식의 동일성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떠올리는 ‘기억’의 문제로 정리된다.³³⁾

윤동주는 자아동일성의 욕망을 ‘거울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 자아에서 찾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초기시인 「자화상」을 통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선부른 자기 인식의 동일시로 인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생각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만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자화상」 전문(1939.9)

33) 박민영 “1930년대 시의 상상력 연구 : 정지용, 백석, 윤동주 시의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2000) 참조

청년기 정체성의 위기를 그린³⁴⁾ 이 시에는 거울이미지로서 ‘우물’이 등장한다. 그 우물은 산모퉁이를 돌아가야 하며, 논가에 외딴 곳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자아와 만나기 위한 마음속의 공간이다. 그가 찾아간 우물 속의 세상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자아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자아가 분리되어 세상 밖에 살고 있는 그는 동일성의 욕망으로 ‘홀로’ 우물을 찾아가고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러나 우물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한 사나이’로, 자아가 분리된 채 타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면하게 된다.

화자는 우물 안 사나이를 동경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반성적 행위가 어렵고 힘들어 자의식의 갈등과 자기혐오를 느낀다. 따라서 현재의 자아는 우물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자아가 “미워져”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화자는 다시 과거의 자아가 “가엾어져” 돌아오는데, 다시 들여다 본 우물 속의 사나이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인 양 영원히 추억처럼 남아있는 존재로 비춰진다. 결국 현재의 나는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는 그가 “미워져” 등을 돌리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과 우물 안의 이상적 자아를 동일하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와 분리된 채 남아있다. 따라서 상상 속의 자아는 순수 자연의 세계인 ‘우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성숙한 모습에 이르기 위한 그의 탐색은 유보된 채 남게 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34) 이황직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연구: 정인보, 함석헌, 백석, 윤동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십자가」 전문(1941.5. 31)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운동주에게 종교는 절대적이었으며 신은 또 하나의 아버지로서 존재했다. 「십자가」에서 시적 화자는 대낮부터 교회당 꼭대기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있다. “침탑이 저렇게 높은데”에서의 침탑의 높이는 신의 무한성을 환기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침탑의 공간은 너무나 높아서 올라갈 수 있는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침탑의 높이에 압도당한 채 시적 화자는 자아의 역할을 상실하고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삶이 햇빛이 걸려 있는 십자가를 통해 보인다. 교회당 주위를 서성거리며 역할을 상실한 채 괴로워만했던 자아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간 행복한 예수와 자신을 동일화해 본다. 십자가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겪는 갈등과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대고자 하는 것이다. 시적화자는 고뇌한 끝에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모가지를 드리우고, 조용히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종교적 구원을 희망해본다.

이처럼 운동주는 시대에 대한 비관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갈등을 종교를 통해 초월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종교를 발판으로 자신의 나아갈 길을 찾았다. 그러나 시인의 의지는 아직 미약하여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이라는 가정을 세우는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운동주가 내면의 갈등과 자아 탐구로 고민 중임을 알 수 있다.

과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 사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바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참회록」에 와서야 시인은 비로소 적극적 행위를 통한 노력으로 자아를 극복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의 ‘구리거울’은 「자화상」의 우물처럼 자신을 비추지만 결코 추억 속의 것이 아니다. ‘구리거울’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고 성찰하는 ‘어느 왕조의 유물’로서 역사의 연속성 위에 놓여 있는 존재이며 자아를 만나게 해주는 물건이다.³⁵⁾ 화자는 ‘과란 녹이 낀 구리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는데, 그 안에는 ‘만 이십사년 1개월’을 살면서 아무 기쁨도 갖지 못하고 사는 자기 자신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며 화자는 ‘참회록’을 적고 고민하며 갈등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과 싸우며 ‘참회’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고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오늘의 참회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쓰게 한다. 지금 현재에 하는 참회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라는 또 다른 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참회를 쓰는 날은 ‘즐거운 날’이다. 따라서 운동주는 언젠가 다가올 그 ‘즐거운 날’을 위해 끝없는 자기 참회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자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슬픈 뒷모습을 한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 이러한 시적 화자와 마찬가지로 운동주도 과거와 미래의 연속성 속에서 숭고한 이상을 갖고 그 이상과 일치된 역사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에 이르러서야 운동주의 현실적 자아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현시대의 고통을 함께 겪어지려고 한다. 이로써 운동주는 ‘역사’ 라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착된 자신의 존재를 발견³⁶⁾하게 된 것이다.

35) 이혜원 “이상과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주체 형성의 양상”, (『한국 문학과 심리주의』 우리어문학회, 2001) p. 114 참조

그러나 「참회록」을 쓸 당시 운동주는 부친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되고, 수속을 위해서 이름을 ‘히라누마’로 계명하고 만다. 이는 만 24년 1개월을 산 식민지 치하의 학생인 운동주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결국 현실과 타협하게 된 일로 그는 또 한 번의 참회를 하게 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전문(1941.11. 20)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운동주는 12월 27일 3개월 앞당겨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다. 운동주는 졸업 기념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시집을 출간하려 했는데, 이 시집 첫 머리에 놓을 작품으로 뽑은 시가 바로 「서시」이다. 운동주는 이 시가 그의 첫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서시(序詩)」로 지었는데, 이에 대해 김우중은 운동주의 사회와 역사를 보는 눈이 불현듯 밝아졌고 그 자신을 ‘개인 속의 나’가 아니라 ‘역사 속의 나’, 혹은 ‘민족 속의 나’로 인식하면서 사명감을 의식했기 때문³⁷⁾이라고 보았다.

「서시」에서 ‘하늘’은 「참회록」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는 역할을 하

36) 정원정 「이상과 운동주 비교 연구-자아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p. 23 참조

37) 김우중 「암흑기 최후의 별-그의 문학사적 위치」, 운동주전집, 제2집 (문학사상사, 1995) p.146 참조

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기독교의 최고 정신과도 상통하는데, 때문에 윤동주는 영원한 아버지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상징적 질서를 실천하려 한다. 한편 오세영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맹자의 正命(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죽는 것이 올바른 천명이다)과 인생삼락 가운데 한 구절인 仰不愧於天(우러러 하늘에 부끄럼이 없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의 복합적 진술³⁸⁾로 보았다.

이처럼 윤동주는 이상적 자아를 바라지만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연약한 자아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 윤동주의 이러한 ‘부끄러움’과 ‘괴로움’이라는 특유의 시 정신은 자아실현을 위해 느껴야했던 그의 강한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반동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에게 있어 별은 동경이자 이상(理想)의 대상이다. 그는 이상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즉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는 담담히 현실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실천을 위한 자신의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그의 이상은 현실의 ‘바람’과 같은 시련 때문에 동요하고 괴로워한다.

‘정체성’이란 사회적 역할의 점유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자기나 자아가 내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의 점유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³⁹⁾ 윤동주는 일제 암흑기라는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童詩)를 통해 모성애의 지향으로 표상되는 유년기의 세계를 시작으로 하여,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며 소극적으로

38)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251 참조

39) 루이스 브레거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홍강의, 이영식 역, 이화여대출판부, 1998), pp. 424~426 참조

밖에 저항할 수 없었던 운동주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했던 신앙심의 한계와 성장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환멸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거울 이미지를 통한 ‘자아성찰’을 통해 아버지로 표상되는 세계와의 동일성을 꿈꾼다. 그리고는 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조국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도덕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를 찾아 성장기의 잃어버린 자아의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2. 성과 사랑의 인식

우리는 청소년기를 가리켜 ‘제 2의 탄생기’ 혹은 ‘성장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라 한다. 특히 청소년기 때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신체와 심리 모두에서 남, 여의 구별이 뚜렷해진다. 이로 인해 자신의 성은 물론 타인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이성을 발견하게 되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혼합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H.마르쿠제는 “성의 발견이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상대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사랑할 능력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보았다.⁴⁰⁾ 이는 성적 성숙을 자기으로부터 이타적 사랑으로 옮겨가는 행위로 보는 견해이자 동시에 육체적 성을 정신적 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에 눈을 뜨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자아와 세계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또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우리 삶 속의 매우 보편적인 일이자, 저마다의 신비로움과 환상을 갖게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40) 김인창 편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 1989) p. 169.

모티브로 성장기의 청소년 뿐 아니라 인간 모두의 지속적이자 은밀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성의 눈뜸” 모티브에서는 불특정한 이성의 대상인 ‘순이’를 등장시킨 운동주의 세 편의 시, 「사랑의 전당」, 「소년」, 「눈 오는 지도」를 통해 성장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사랑의 감정과 정서적 아픔, 이별과 성숙의 과정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순아 너는 내 전(殿)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古風)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 감어라.
난 사자처럼 앙크린 머리를 고무런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였다.

성스런 촛대에 열(熱)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딪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네게는 숲 속의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내게는 험준한 산맥이 있다.

- 「사랑의 전당」 전문(1938.6.18)

「사랑의 전당」은 ‘순’ 또는 ‘순이’가 등장하는 세 편의 작품 중 가장 먼저 씌어진 시로,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적 공간에서 일어난 ‘나’와 ‘순’의 사

랑과 이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나’와 ‘순’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서로의 ‘전’, 즉 서로의 ‘사랑의 전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곳으로 우아하고 고전적이며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전당’에서 들은 비밀스럽고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각자의 내면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육체도 직접 보게 된다. 시적 화자인 ‘나’는 ‘순’의 모습을 보고 맑은 수정 눈을 갖은 깨끗하고 고운 암사슴으로 비유한다. 하지만 시적화자인 자신은 헝클어진 털을 가진 불안하고 거친 모습의 사자로 비유하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순’에게 들키지 않으려 ‘순’에게 눈을 내려 감으라 하고 자신은 머리를 고르려 한다. 이런 화자는 ‘순’과 함께 하는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 결국 ‘우리들의 사랑’을 ‘병어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순’과 시적화자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타오르거나 황홀함을 안겨주는 사랑이 아닌, 가슴에 안은 채 각자의 외로움에 빠져 드는 내성적 사랑이 된다.⁴¹⁾ 따라서 시적화자에게 ‘순’은 단순히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 시적 자아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가 된다.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 못한 ‘나’와 ‘순’의 병어리 사랑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시적 화자인 ‘나’의 결심으로 이별을 맞게 된다. 시적화자는 성스런 촛대에 ‘뜨거운’ 불이 꺼지기 전에 ‘순’에게 앞문으로 내달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화자는 ‘우리들의 사랑’을 막는 더 큰 ‘어둠과 바람’이 오기 전에 뒷문으로 사라지겠다고 한다. 이처럼 ‘나’와 ‘순’은 ‘사랑의 전당’에서 만나게 된 그 순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곳을 떠나며 이별을 맞지만, 시적 자아가 ‘순’과의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떠나겠다고 고백한다. 이로서 ‘나’와 ‘순’은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새로운 세계에 눈 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41) 이진청, 「윤동주 : 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p. 39, 참조.

하지만 ‘순’에게는 여전히 어둠과 바람이 없는 전당과 같은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가 펼쳐지고, ‘나’에게는 또 다시 어둠과 바람에 맞서야 하는 ‘험준한 산맥’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전당’에 머물러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것과 이별하여 ‘험준한’ 모험과 고난이 가득한 세계로 달려가는 일, 그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과정인 것이다.⁴²⁾

‘사랑의 전당’은 시적 자아가 스스로 ‘성스런 촛대’에 불을 밝히고 비밀처럼 성인식을 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성인식은 ‘열한 불이 꺼지기 전에’ 끝내야만 한다. 소년기의 평온함에 안주해 사랑의 전당에 머물면서 성인기의 모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년의 아름다운 추억인 ‘순’과의 사랑마저 ‘어둠과 바람’으로 인해 퇴색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시적자아인 ‘나’의 성인이 되기 위한 ‘험준한’ 길에 ‘순’과의 이별 역시 고통으로 남게 된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만져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 「소년」 전문 (1939)

사춘기 소년의 가냘픈 감상과 해맑은 정서가 배어 있는 이 작품은 하늘, 강물, 단풍잎 등의 시각적 심상이 얼굴을 만져보는 손바닥의 촉감을 통해 감각화 되어 시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어느 가을 날, 소년은 단풍잎이

42) 류양선, 「한국현대문학의 탐색」(역락 2005) p. 161 참조

43) 위의 책, p. 161 참조

쌓인 언덕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리움에 젖는다. 가만히 파란 하늘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눈썹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는 것 같고 두 손으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는 것 같다. 소년이 자신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자 파란 하늘은 어느 새 파란 강물이 되어 소년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다. 손바닥에는 물결 같은 손금을 따라 하늘이 맑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운 순이의 얼굴이 그 위에 드리난다. 소년이 눈을 감자 맑은 강물은 그대로 흘러 순이의 얼굴을 그린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현실이 아닌 추억 속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되어 나타난다.

이 시는 파란 하늘을 보던 ‘소년’의 눈에서, 파란 물이 든 눈썹, 얼굴을 만지는 파란 손바닥, 그리고 손바닥 속의 강물이 흐르는 손금으로 이어지며 하늘이라는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년은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봄으로 해서 순이를 추억해내게 되는데 이는 순이에 대한 기억이 촉각, 즉 육체적으로 체득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감각 본능에서 성(姓)이 출발함을 보여준다.

손금과 강물은 물결이라는 형태의 유사성도 있지만 흘러가는 운명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 자리마다 봄을 마련하듯이’ 자연도 운명도 강물처럼 순리대로 흘러간다. 하지만 순이와의 추억은 자신의 운명선대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소년의 마음에 그대로 어려 있다. 따라서 소년이 스스로 과거와의 이별을 감행하긴 했으나, 자신의 얼굴을 통해 순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그가 아직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시적 화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이성을 기억해내는 감각 본능적 성에서 정신적 단계의 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말을 맺고 있다.

「사랑의 전당」의 시적 자아는 강렬한 이별에의 의지를 보이지만 「소년」

의 시적 자아는 추억 속의 황홀경에 빠지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만다. 이러한 사랑과 이별을 통한 시적 자아의 성장과정을 그린 윤동주의 시는 현실에서의 이별을 그린 「눈 오는 지도」를 통해 매듭지으며 사랑에 관한 시편의 완결을 이루게 된다.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 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년 열두 달 마냥 내 마음에 는 눈이 내리리라.

- 「눈 오는 지도」 전문(1941. 3. 12)

시 「눈 오는 지도」는 하얗게 함박눈이 내리는 날을 배경으로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시적 화자가 이별을 현실적 사실로 받아들이며 시작한다. 이것은 시적 화자가 「사랑의 전당」에서 보여준 환상적이며 고풍스런 전당에서의 이별이나, 「소년」에서 표현된 자연 속에서의 순이에 대한 회상과는 전혀 다르다. 순이가 떠나는 ‘아침’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자신의 방 안’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속에서 화자는 함박눈을 보며 실제적으로 순이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화자는 순이가 떠난 충격으로 하얗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을 순이가 떠나버린 밖의 풍경처럼 함박눈이 내리는 것으로 착각한다. 화자는 자신이 홀로 남아있는 현실을 깨닫고 절감한다. 이제 화자는 순이가 있을만한 곳을 상상 속의 지도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시적 자아는 순이가 있는 곳을 찾으려는 절실함으로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며 절규한다. 화자는 순이가 가는 곳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이'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당장은 순이를 찾을 수 없지만, 그녀와의 추억과 사랑은 그것을 덮고 있는 눈이 녹으면 화자 안에 간직된 순이의 기억과 발자국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순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처럼 순이가 떠나간 발자국에는 꽃이 필 것이니 그 꽃을 따라 순이를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한다. 따라서 현재의 화자는 순이를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함박눈으로 인해 순이를 찾는 일을 잠시 미뤄두는 것으로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라고 단정함으로서 순이와의 이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녹고 꽃이 핀다는 것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는 그런 날 순이를 따라 발자국을 찾아 나서겠지만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함으로서 그리움을 지우고 있다.

일 년 열두 달 순이가 떠난 날처럼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화자의 마음에 눈이 내리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눈은 순이의 발자국을 덮어버리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눈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화자는 순이를 찾기 위해 언제나 길을 떠나려고 하겠지만 실상은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처럼 화자의 마음에는 눈이 내려 순이를 찾지 않고 결국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며 그녀를 지운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추억 속 순이와의 평온한 사랑 대신 주체적 성인으로 우뚝 서고자 성숙한 이별을 감행한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재탄생은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일 년 열두 달 눈이 내리는’ 슬픔과 외로움의 길이 계속되는 것이며,⁴⁴⁾ 그러므로 화자는 순이와의 추억을 꽃으로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다.

실제 윤동주의 생애에 있어 이성 교체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사랑의 전당」을 쓴 이후 얼마 안 된 시기에 발표된 동시 「코스모스」에서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라고 표현한 구절로 보아 그의 순이는 ‘코스모스’와 같은 여성인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결국 그는 ‘순이’라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도 ‘한낱 병어리’처럼 ‘순이의 얼굴이 어리는’ 하늘만을 바라보며 ‘일 년 열 두 달 눈이 내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헤어지는 소극적 방식의 사랑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순이’를 소재로 한 세 편의 시가 모두 ‘사랑’보다는 ‘이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장기의 그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길의 발견과 정체성 모색

청소년의 성장을 다룬 문학에서 ‘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란 다름 아닌 인생의 길을 찾고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에서의 길은 ‘가는 길’이 아니라 ‘발견의 길’이 된다.⁴⁵⁾

윤동주 시에서 나타나는 길 찾기의 과정은 그가 외부 현실을 어떻게 받아

44) 위의 책, p. 175 참조

45)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박사),

들이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담겨있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에는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18살 성장기의 자아 탐색 과정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성장하며 겪게 되는 고통과 피로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등이 나타나게 된다.

운동주는 작시(作詩) 활동을 통해 그의 삶에 존재하는 갈등을 자신 안으로 꺼안고 스스로 극복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항하였다. 이로 인해 그의 작시과정은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과정은 친일 작품을 써서 편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당시의 시류에 편승하는 대신, 자신의 바람대로 시인으로서 내적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결심한 운동주의 소중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길 찾기’는 시를 쓰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

달밤의 거리
광풍이 휘날리는
북극의 거리,
도시의 진주
진등 밑을 헤엄치는
쫓그만 인어, 나
달과 전등에 비쳐
한 몸에 둘셋의 그림자
커졌다 작아졌다.

피로움의 거리
재색빛 밤거리를
걸고 있는 이 마음.
선풍이 일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 갈피 두 갈피
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푸른 공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 「거리에서」 전문 (1935.1.18)

이 시는 운동주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해인 1935년 평양의 송실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을 무렵 쓴 작품이다. 사춘기 소년의 우울함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작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탐색 보다는 시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거리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다.

이 시에서 길은 광풍이 휘날리는 달밤의 거리로 나타나는데, 시적 화자는 외부세계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의해 바다와 같은 북극의 거리에서 자신이 조그맣고 미약한 존재인 ‘조그만 인어’가 됨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의 몸에 투영된 ‘둘 셋의 그림자’를 보며 현실의 자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다. 2연에서 시적 화자는 거리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 ‘괴로움의 거리 / 재색빛 밤거리’라 표현한다. 2연에서는 1연과 달리 선풍이 일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강하게 몰아치기만 하는 광풍과 달리 이동성을 가진 회오리바람인 선풍은 화자의 내부에서 일고 있다. 이는 시적 화자가 자신이 서 있는 거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로우면서도 / 한 갈피 두 갈피’ 마음의 그림자가 피어나고,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푸른 공상이 /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운동주가 「거리에서」를 쓰던 무렵, 그가 다니던 송실 학교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 된다. 따라서 운동주는 고향인 용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시에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운동주의 초기 작품인 이 시는 그의 작품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의 면모보다는,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난 성장기 소년의 감상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새로운 길」 전문 (1938.5.10)

이 시는 윤동주가 고향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1938년에 쓰인 시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문학 수업을 받게 된 때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접어든 윤동주는 그의 시 「새로운 길」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의 대한 방향을 그려보고 있다.

윤동주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상향을 향한 거창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우리의 주변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있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다시 마을로’ 가는 평범한 길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흔해 보이는 이 길을 윤동주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새로운 길, 나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다. 윤동주가 걷고자 했던 길은 타의에 의한 성장이나 물질적 획득을 위한 길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필요로 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길은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실현과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의식 성장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새로운 길은 ‘마을’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윤동주의 궁극적인

목표나 삶의 지향점이 이웃 간의 사랑과 평화로운 지상공간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 즉, ‘마을’이란 미약하게나마 시인이 자신의 내부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현실로 돌려 타인을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마을로 향하는 이 길은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나는’ 자연이 함께 하는 곳이며, 아가씨가 지나기도 하고 바람이 일기도 하는 나와 타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평화롭고 열려있는 길이다. 또한 화자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내일도.....’라고 말해 이 길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모색 과정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운동주의 새로운 길이란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향하는 길로, 지금까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현실을 깨닫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으로 돌아오는 곳이다. 하지만 이 시에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담기지 않은 채 다소 낭만적인 젊음의 포부만이 담겨 있다. 이는 운동주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행로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년기의 낭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46) 마광수, 「운동주 연구」(정음사, 1984), p.50 참조.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 「병원」 전문 (1940.12)

「병원」은 1940년, 운동주가 연희전문학교 3학년 다니고 있을 무렵 쓴 작품으로, 이 시에는 당시 그의 교수였던 최현배와 손진태의 가르침에 의해 고취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 시대의 불안함과 병든 현실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시인은 햇빛이 비치는 ‘병원 뒤뜰’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다. 여자는 얼굴에 살구나무 그늘을 드리우고는 흰옷 아래로 흰 다리를 내놓고 일광욕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저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시인은 한나절이 기울도록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에겐 누구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살구나무가 옆에 있음에도 나비조차 날아오지 않는다. 슬프다는 감정마저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상황에서 살구나무가지에는 이 상황을 전환시켜줄 바람 역시 불지 않는다.

시적화자는 문득 자신의 병을 생각한다. 화자는 오래된 아픔을 참아오다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늙은 의사는 젊은 ‘나’의 병을 알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없다고 한다. 시적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여자의 병과 동일시하며 ‘지나친 시련과 지나친 피로’를 느낀다.

화자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여자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민다. 육체적인 가슴앓이에도 불구하고 가슴에는 아직 사랑의 불꽃을 담고 있는 여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는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⁴⁷⁾ 시적화자는 사라지는 여자를 보며 회복에의 간절한 희망을 갖고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아픔에 있어 여자와 동질 의식을 느끼며 여자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47) 위의 책, p.297 참조.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병원의 뒤편은 치유의 공간이기 보다는 적막함이 감도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는 진공 속의 공간이다. 일광욕을 하지만 그들이 켜 있고 살구나무가 있지만 나비 하나 없는 뜰이다. 늙은 의사가 있지만 병의 원인을 모르고 가슴을 앓는 여자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시적화자는 어떠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다. 따라서 이 공간은 시적화자에게 있어서 치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휴양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특히 시적화자의 병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에 있음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가 마주친 현실엔 중증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 이는 그가 쉽사리 현실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병원은 시인의 병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내리지 못하는 곳이다. 병을 자각하고 있는 ‘나’에게 ‘늙은 의사’는 병이 없다고 하여 ‘나’는 치료를 받지도, 정상적인 사회 구조에 편입되지도 못한다. 시인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⁴⁸⁾

운동주는 암담한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환자 투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집이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 시집의 제목을 「병원」으로 하려 마음먹는다. 운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제공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가슴을 앓는다는 젊은 여자’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듯, 그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시인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뛰어들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 자신의 직접 느끼

48) 권경아 「‘병원’에 나타난 병적 징후로서의 세계」 『운동주 60주기 특집 -운동주시 다시 읽는다.』 (시와시학, 사 2005 봄, 통권 57호) p. 144~149 참조.

고 탄생시킨 시만이 시인의 진실한 태도를 반영하고 독자들에게는 병원과 같은 치유의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운동주의 시를 보면 현실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병을 육체적이기보다는 슬픔을 가진 대상을 바라보는데서 오는 연민의 가슴앓이로 본다면, 회복을 바라는 그의 마음과 정신은 관념적인 가슴앓이로 인해 침식당하지 않고 있는 것⁴⁹⁾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49) 위의 책 , p. 144~149 참조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길」 전문 (1941.9.31)

이 작품은 운동주가 연희전문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쓰여진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막막한 심정을 내비친다. 이는 운동주가 그 당시 작품 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에 대한 불안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도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따라서 이 시에서 나타나는 ‘길’은 화자의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도정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적 화자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더듬어 가며 길을 나선다. 여기서 주머니는 길에 비하여 작고 내밀한 공간을 가진 사물로 화자의 내면과 동일시 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주머니를 더듬는 행위는 잃어버린 무언가가 화자의 내면에 존재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⁵⁰⁾ 따라서 시적 화자의 도정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의 기억과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반성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성적 행위는 화자 자신의 내부세계의 길과 외부세계의 길 사이의 긴장을 반영함으로써 시작한다.

길은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있는 돌담을 끼고 있다. 시인은 끝없이 이어진 돌담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막막함을 드러낸다. 화자는 잃은 것을 찾기 위해 탐색을 계속 하지만 돌담은 내부에 접근할 수도 없게 쇠문마져 굳게 닫고 내부의 알 수 없는 무게만큼 육중한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다.

50) 김현자, 「아침빛 길의 시학」(소명출판사, 2005) p. 266~267 참조.

이러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해있다. 이것은 화자의 여정이 길어졌음을 뜻하며 동시에 시인의 마음의 길이 순환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는 것은 운동주의 내면세계에 지속적인 갈등과 탐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시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길 위에서 맴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자는 인간 실존과 자신의 현실적 삶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돌담을 더듬어 눈물을 짓는다.’

시적화자는 잃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돌담의 내부는 쇠문이 닫혀 볼 수 없고, 시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흘러오고 흘러간다. 화자는 자신이 사는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돌담을 더듬던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 본다. 푸른 하늘은 운동주의 자아 성찰의 거울을 의미한다. 화자는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길과 자아를 찾고자 한다. 그러자 자신의 현재 상황과 심리상태가 하늘을 통해 투영되어 부끄러움을 느낀다.

화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의 자신을 돌아다본다. 풀 한포기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화자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라고 답한다. 화자는 내부가 가려진 담 건너편에 진정한 자아가 있음을 확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찾아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결국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에서 시작한 이 시는 자신이 사는 인생의 목적을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시대적, 민족적 의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진정한 예술적 자아를 찾기 위한 도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청년기의 현실적인 길로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미지에 있을 고향으로 도피하

고 만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또 다른 고향」 전문 (1941.9)

이 시는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5세에 씌어진 작품으로 서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다 고향 용정에 들렀을 때의 경험을 작품화한 글이다. 학생 신분으로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느낀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북간도 명동촌에 형성된 민족적 분위기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시대를 돌아보게 된다. 이로 인해 예술적 자아로서

나름대로의 예술관을 실천하려는 자신과 그것을 저지하고 운동주를 소외시키는 외부와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운동주는 이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도피를 선택한다.

「또 다른 고향」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자신을 따라온 백골과 한 방에 누웠다. ‘백골’은 고통스런 현실에 의해서 피폐해지고 앙상해진 자아의 육체로서, 밀폐되고 어두운 방에 백골과 함께 누워있는 풍경은 화자에게 불안하고 고독한 광경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어두운 공간이 갑자기 우주로 통하고 현실의 조건을 초월하는 미지의 공간으로 변한다. 하늘에서는 마치 신의 계시처럼 깨달음과 같은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시적화자의 영혼을 뒤흔들고 화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바람에 의해 곱게 풍화작용하며 사라져가는 육체를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현실을 인식하고 고뇌하는 자신인지, 사라져가는 육체인지, 아름다운 영혼인 어딘가에 남아있을 예술적 자아인지 알지 못한다.

이 세 자아의 모습은 모두 운동주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자아가 전부 눈물을 흘림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고자 한다. 따라서 이 세 분신 중 ‘눈물짓는 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을 결국 그가 “누구여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과정⁵¹⁾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다보며 눈물짓고 자신을 성찰하던 자아에게 하늘에서 들리던 바람소리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 개의 소리가 되어 돌아온다. 화자에게 개의 소리는 어두운 현실에 항변하며 내는 소리로 지조 높은 개가 그의 정신을 채찍질하며 쫓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자 시적화자는 어두운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백골로부터 탈출하여 시대를 항변하는 개에 쫓기듯 ‘가

51) 강경희, 「아름다운 혼의 눈물」, 『운동주 60주기 특집-운동주 시 다시 읽는다.』(시와시학, 2005 봄호 통권 57호) p. 195 참조.

자 가자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외친다.

‘또 다른 고향’이란 시인이 삶의 보람과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위에 터를 잡고 의존하며 살 수 있는 본질로서의 고향이다. 예술적 이상을
위해 시의 실천을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자아와 현실을 회피하고 안주하
려는 자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 운동주는 지금 그가 처해있는 현실을 피
해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비록 고향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고향은 그에게 안정과 평온으로서의 장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향을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

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
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
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별 헤는 밤」 전문 (1941.11.5)

철학적 영역에서 고향은 ‘자기 동질성’ 내지 ‘자기 정체성’의 발견 장소이
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을 던지는 것은 “고향”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은 타자(他者)와 타자성(他者
性)으로부터 자아를 구분해 내고 이를 통해 자기 발견과 자기 확정으로 나
아가게 해주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시절과 동심의 세계 가운데 있는
고향은 현재와 만나는 과거의 지평이 된다. 고향에 대한 기억들은 동심을

고향에 머물게 하고 고향을 동심의 회상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한다.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을 찾는 작업은 고향과 동심의 세계를 시적 현재 속에 재생시키는 것이다.⁵²⁾

1941년 11월 연희 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쓰인 이 시는 후에 그가 출간하려고 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의 근거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시가 쓰였던 당시는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운동주는 송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비극적인 현실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타향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끊임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져왔고 이는 운동주 시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 주었다.

「별 헤는 밤」에서 시적 화자는 떨어지는 낙엽마냥 인생의 조락이 느껴지는 가을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시적 화자가 바라 본 하늘에는 별이 있고, 그 별은 언제나 다수로서 인식되며 ‘어둠의 힘에 대항하는 정신력’을 나타낸다.⁵³⁾ ‘나’는 별을 다 헤일 듯 했지만, 결국 다 못 헤고 만다. 하지만 다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아침이 왔기 때문이며, 아직 자신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자신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별 하나 하나마다 추억과 사랑, 쓸쓸함과 동경, 시와 어머니, 그리고 고향을 떠올리며 자신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한다. 시적 화자가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는 것들은 그리움의 이름들이다. 소학교 때 아이들의 이름, 이국소녀들의 이름,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시인들의

52) 이정금, 「운동주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고찰」(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참조.

53) 신진, 「한국현대시 읽기」(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 p. 116 참조

이름 등이 ‘나’의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움을 갖는다는 것은 의식의 순수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움이 가 닿은 곳은 인간이 간절히 지향하는 곳, 순수한 곳, 또한 선한 곳이다. 그래서 별을 헤는 밤의 정조는 ‘지순한 마음의 표백’으로 흐른다.⁵⁴⁾

그러나 별이 멀리 있듯 이러한 것들은 시적 화자의 주변이 아닌 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시적화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모아져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로 환원되어 그에게 돌아온다.

시적화자는 하늘의 별과 자신을 일체시키며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이름 석 자를 써보지만 곧바로 흙으로 덮어버린다. 언덕 위에 쓴 이름은 일본에 의해 창씨개명 되어 이제는 쓸 수 없는 자신의 과거가 담긴 이름이며, 어둠에 대항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현재의 개명 된 수치스런 이름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는 일제의 억압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움으로 갈등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밤을 새워 슬피 운다.

마지막 연을 보면 계절이 가을에서 어느새 겨울로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치하를 겨울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내 이름자는 묻혀 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창씨개명으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치욕의 시대가 무덤과 같은 죽음의 시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럽게 풀이 무성할 게외다.’라고 하며 희망을 놓지 않는다. 즉, 계절의 순환과 더불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죽었던 풀들이 되살아나듯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국권이 회복될 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이름자도 자랑스럽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국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⁵⁵⁾

54) 한영옥 「윤동주의 시, 아득한 그리움의 생」,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1999.) p.204 참조.

55) 유재천,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의 비유구조”, (제1차 국제언어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7. 29) . 참조

이를 통해 그가 ‘이름자를 써보고 흠으로 덮어버리는’ 소극적 자아에서 ‘내 이름자 문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으로 희망하는 미래적 자아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주는 자신의 시집이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별이 주는 정서인 위안의 세정력으로 가능해진다고 믿었다.⁵⁶⁾ 그래서 그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시 「별 헤는 밤」이 씌어지자 자신의 시집 제목으로 정했던 『병원』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바꾼다. 이로써 운동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넘어서는 예술혼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반성을 통해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아!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56) 신진, 「한국현대시 읽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 p.116 참조.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간」 전문 (1941. 11.29)

예술의 세계는 창조를 위한 표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예술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선명한 내면세계의 표현이며, 예술품은 그러한 창조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적 표현은 예술 행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 동시에 완성이다. 따라서 예술은 표현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예술작품이 사회의 불합리로 인해 검열 받고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담을 수 있다.⁵⁷⁾

운동주는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 졸업 기념으로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기 위하여 미리 엮어 본 자필 시고 한 부를 그의 교수였던 이양하에게 올린다. 하지만 이양하는 운동주의 몇몇 작품이 일본 관헌의 검열에 통과될 수 없을뿐더러 그의 신변에도 위험을 가할 것이니 보류하고 기다리라며 출판을 만류한다.⁵⁸⁾ 그리하여 운동주는 자신의 시집출판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1941년 11월 29일에 씌어진 「간」을 통해 당시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동양의 「구토설화」와 서양의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간’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1연은 「구토설화」로 토끼가 거북이의 유혹으로 용궁에 갔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이후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시적화자거북이의 땀에 넘어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온 토끼의 입장에서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고 말하고 있다.

2연에서 시적화자는 ‘둘러리를 빙빙 돌며’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생명의

57) 최은영, 「이청준의 예술가 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참조.

58) 이진청,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문학세계사, 1981) p. 51 참조.

징표인 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다. 또한 2연에서는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코카사쓰 산중에서 붙잡힌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용궁에서 도망 나온 ‘토끼’의 이야기인 「구토설화」가 작가에 의해 교묘히 교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3연은 인간을 위해 제우스를 속이고 불을 훔친 죄로 코카사쓰 산에 쇠사슬로 묶여,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밤에는 그의 간이 되살아나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시적화자는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독수리에게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 /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라며 자기의 간을 뜯어먹도록 명령한다.

여기서 ‘독수리’는 화자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간)을 쪼아 내며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 예리한 의식이다. 따라서 시적화자의 ‘너(독수리)는 살지고 / 나는 야위어야지’라는 말은 자신은 육체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명징한 의식을 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⁹⁾ 이러한 시적화자의 의지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북이야! /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4연의 표현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다.

마지막 연에서 시적 화자는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하며 제우스의 가혹한 형벌을 받는 비극적인 인물, 프로메테우스를 부른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인간에게 전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을 넓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인간을 위해, 인간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아픔을 감당해내야 하는 인물이다.⁶⁰⁾ 이를 통해 시적화자는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사로잡힌다 해도 끝없는 침전을

59) 김홍규, 「한국현대시를 찾아서」(푸른 나무, 1999) pp. 335~ 336 참조.

60) 이진청 「윤동주: 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101 참조.

통해 인류를 구하겠다는 신념을 다진다.

이때의 운동주는 시인이란 프로메테우스처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인이 길고 고통스러운 자기 단련의 시간을 거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시는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갈등과 혼란의 연속인 사회를 살아가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다.

「간」에서 운동주는 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기 신뢰라는 예술가의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세계와 부딪힌다. 이러한 태도는 「간」 이전에 씌어진 그의 시 「또 다른 고향」에서 보여주었던 ‘도피’라는 소극적인 대항과 타인의 아픔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병원」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예술은 아픔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며 단순히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그 아픔을 앓고 스스로 깨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주는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처럼 계속해서 생성되는 아픔을 앓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동주의 시는 「간」을 전후로 해서 자기화를 통한 사회화, 즉 자기화와 사회화를 동시화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현재에서 돌아보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지평을 얻게 되었다⁶¹⁾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61) 박의상, 「운동주 시의 사회심리학적 개설: 자기화과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3)참조.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쉽게 씌어진 시」 전문 (1942.6.3)

운동주의 최후의 작품으로 알려진 이 시가 창작된 1942년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막바지에 이르러, 전시 동원체제가 구축되던 시기였다.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발발한 태평양 전쟁은 강제 징용된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란 명칭으로 군인들의 성적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억눌리고 고통 받았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고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⁶²⁾

그 당시 운동주는 폭력적인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

62) 김용찬, 「시로 읽는 세상」(이슈투데이, 2002) pp. 48~49 참조.

며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비 오는 날 운동주는 다다미가 깔린 옥첩방에서 자신의 모습을 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글만 쓰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길이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진정한 시인이 되기도, 살아가기도 어렵다.

그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에서 자신의 학업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부모님의 땀내와 사랑내 나는 학비 봉투를 받아들고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강의에는 삶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도 없고 조국을 빼앗긴 시인의 상황과도 무관할 뿐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며 시인은 어릴 때 친구들도 죄다 잃어버리고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만 침전하는 것인지 자문해 본다.

사람들은 인생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인인 화자에게 삶과 같은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진다. 살기 어려울수록 시는 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시인은 오히려 시를 통해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쉽게 시가 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8연에서 1연의 행을 뒤집어 ‘옥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은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로 표현함으로써 앞서 보았던 현실을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는 스스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듯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의지로 어두운 현실에 불을 밝히고는 암울한 시대를 바꾸어 줄 아침을 기다린다.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슬피하며 시를 쓰고 있지만, 앞서 만난 나약한 모습이 아닌, 비장함이 느껴지는 ‘최후’의 내가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쉽게 씌어진 시로 인해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시 쓰기

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에게 작은 손을 내밀게 된다. 참된 희망은 뼈아픈 후회나 아픔을 통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껏 부정되었던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와 더 큰 깨달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만 했던 자신에게 고통 속에 있던 눈물과 함께 위안을 담은 악수를 청한다. 이는 시인이 본래적 부끄러움을 개인적 자아에 대한 침전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예술적 완성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신과의 악수를 통해서 더욱 깊은 예술적 자아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제목은 ‘쉽게 찢어진 시’지만 결코 쉽게 쓰인 시가 아니다. 이 시에는 유학생 신분으로서의 운동주 개인의 감상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로 인한 괴로움과 고민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운동주는 시를 통하여 예술적 자아가 내적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술적 자아가 내면적 성장과정과 그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현실에서 예술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⁶³⁾

따라서 운동주의 시는 성장시로서 다음과 특징을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 아버지 찾기로 나타나는 자기 동일성의 대상을 제시하며 성장기에 있는 자아의 현실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운동주 시에서는 가족 내의 아버지로부터 조국, 신앙, 도덕률로 대변되는 상징적인 아버지와 동일화를 꿈꾸며, 일제 강점기 하에서 어떻게 시대적 문제를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개인적 자아에서 가족, 친구, 연인으로 대변되는 타인과의 관계속의 문제를 다루며 성숙을 경험한다. 운동주 시에서는 ‘순이’로 대변되는 이성애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셋

63) 최은영, 「이청춘의 예술가 소설 연구」(학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참조.

째, 길 찾기로 대변되는 자기 성장문제를 다룬다. 운동주 시에서는 자아정체감 찾기를 목표로 시 창작을 통해 예술적 성장을 통한 자기실현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시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아가 외부적으로는 현실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내부적으로는 자기 성장의 문제로 타인과 관계(이성에 대한 눈뜸)하며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하는 성장 과정중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그려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운동주의 성장시는 자아 인식과 더불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Ⅲ. 운동주 성장시 주제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 연구

1. 운동주 시의 교재 수록 현황과 특징⁶⁴⁾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운동주의 작품을 찾아보면, 총 12학년의 기간 동안 단 한편의 시만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마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감상하며 읽기’라는 단원에서 단원 길잡이로 ‘오줌싸개 지도’라는 동시가 잠깐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외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상)의 1단원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에서 보충학습으로 실린 정병욱의 ‘잊지 못할 운동주’라는 평전이 운동주를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의 전부다. 결국 지금의 국어교과서만으로 운동주라는 시인과 그의 작품을 알기는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하지만 2003년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에서는 총 9편의 운동주의 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단원명	학습목표	수록된 문학 교과서
서시	I.문학의 본질 1. 문학의 특징	.문학이 언어를 표현매체로 한 형태임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구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디딤돌 (상)

64) 표는 정린다의 「운동주 시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부산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석사)의 현황 분석을 참조하였음.

참회록	II.문학의 가치와 기능 2. 문학의 본질적 기능	.이 시가 지닌 반성과 성찰적 특성을 이해한다. . 이 시에 나타난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해한다.	블랙박스 (상)
	II.시의 수용과 창작 4.시의 주제와 의미	.시의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시의 주제와 제재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제에 따라 시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재 (상)
십자가	III.문학의 수용과 창작 1. 서정의 세계 (3) 시인의 목소리	.시의 언어와 운율을 이해한다. .시의 비유와 상징을 이해한다. .시적 화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시의 이미지와 표현기법을 이해한다. .시 창작의 방법을 알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케이스 (상)
	V.문학과 삶 2. 역사속의 삶의 문학	.문학작품은 역사를 담고 있음을 안다. .역사적 현실이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 역사의식, 현실의식을 알고 비판한다.	상문 (하)
별 헤는 밤	II.시의 수용과 창작 2. 시의 형식과 운율	.시의 형식상 특징을 이해한다. .시의 운율적 효과를 이해한다. .시의 형식과 운율을 고려하여 시를 지을 수 있다.	문원각(상)
	III.문학의 수용과 창작 7. 자연과 서정의 힘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를 이해한다. .다양한 주제와 갈래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창작한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민중 (상)

쉽게 씌여진 시	II. 한국 문학의 흐름 5. 근대화 시기의 문화와 문학	.근대화 시기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근대화 시기 문학의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 .근대화 시기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읽고 수용한다.	중앙 (하)
	II.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새로운 문학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지학사 (상)
또 다른 고향	II.문학의 수용과 창작 1. 서정세계의 감상과 표현	.서정 문학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한다. .생활 경험과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서정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원 (상) 두산 (상)
자화상			민중(상)
길	II.문학의 가치와 기능 2.문학의 본질적 기능	.이 시가 지닌 반성과 성찰적 특성을 이해한다. . 이 시에 나타난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해한다.	블랙박스 (상)
아우의 인상화	IV.문학의 문화적 특징 1. 삶에 대한 간접 체험의 세계	.문학에 형상화된 삶과 현실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삶의 현실이 문학에 반영되는 양상을 이해한다.	두산 (하)

위와 같이 운동주의 작품이 제각기 다른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가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4가지 관점에 따른 것인데,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이 이에 속한다. 표현론적 관점 측면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반영론적 관점에서는 ‘문학과 문화’단원에서, 효용론적 관점에서는 ‘문학의 가치화

와 태도 '단원에서, 구조적 관점에서는 '문학의 본질' 단원에서 각각 그에 알맞은 작품을 담고 있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작가가 작품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그의 전기(傳記)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고찰하는 시각이다. 표현론적 관점을 다룬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에서는 운동주의 시 중 「십자가」, 「쉽게 씌어진 시」, 「별 헤는 밤」, 「또 다른 고향」을 담고 있는데, 이 단원의 학습목표인 '시에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시적 화자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다', '시인이 자연물을 통해 느끼는 서정을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 알아본다', '자연물을 보고 떠오르는 순수 서정을 시적으로 표현해본다', '작품을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해본다', '내용, 형식, 표현의 요소를 바꾸어 작품을 재창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토론해본다', '작품에 대한 비평적 글씨를 써본다' 등의 활동을 통해 시의 감상이 이루어진다.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보고, 작중 현실과 작품 속에 반영된 실제 현실을 대비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관점이다. '문학과 문화' 단원에서는 운동주의 작품 「길」, 「십자가」, 「쉽게 씌어진 시」, 「서시」가 '근대화 시기' 혹은 '일제 강점기' 문학으로서 실려 있다. 이러한 작품은 '이 시의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생각해 본다', '이 시의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창작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 본다', '시적 화자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본다', '식민지시기에 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 알아 본다'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있다.

이처럼 운동주의 작품이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문

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과 '문학과 문화'라는 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그의 작품이 작가의 삶과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를 중심으로 감상,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과서 학습활동의 내용은 막연하고 적은 작품수로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과목의 목표대로 그 내용이 실행되고 있지도 않는 실정이다. 한두 가지의 관점과 네댓 개의 학습목표만으로 일제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섬세한 내면세계를 지닌 소년의 성장을 다룬 운동주의 작품 세계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해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문학과목의 목표에 따라서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과 함께 자아성찰을 매개로 한 운동주의 '성장시주제'에 대한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안(具案)해 보겠다.

2. 사회화 측면에서 교수-학습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 주체로서의 정립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각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개개인이 사회 역사적 주체로 설수 있는 것은 문학 맥락 교육이 담당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역사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초상화에 집단의식을 결부시켜 보는 데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형성을 문학 활동을 통해 시도하도록 하는 일이 문학교육의 한 내용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⁵⁾

운동주의 시들은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한 성장시적 특질을 가지면서 일제 식민지 치하의 사회에 대한 고뇌도 함께 담고 있어서 나와 세계를 돌아 볼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운동주 시 「참회록」의 주체는 이상적 자아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라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착된 자신의 존재를 발견⁶⁶⁾하고 거울 이미지를 통한 ‘자아성찰’에 의해 아버지로 표상되는 세계와의 동일성을 꿈꾼다.

성장을 ‘미숙한 존재에서 숙련된 존재로의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성장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양상은 ‘스스로 살기’와 더불어 살기’가 될 것이다. 곧 인간이 성장하다는 것은 개인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사회적 구성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장은 개인화와 사회화이다.⁶⁷⁾ 중,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인식과 사회인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개인적인 문제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장시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1930년이라는 암흑기에 삶을 영위해 나간 운동주의 생애를 고찰해보며 ‘아버지 찾기’로 상징되는 사회화 측면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교과서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에게 운동주의 후기 시에 해당되는 「참회록」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1) 지도방법

구성주의⁶⁸⁾ 관점의 수업 모형은 ‘개인적 구성’→‘개인간 구성’→ ‘사회화

65)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 269~270 참조.

66) 정원정 「이상과 운동주 비교 연구-자아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p. 23 참조.

67) 구인환, 「자아성장과 문학 교수, 학습 방법」, 『문학교수, 학습방법론』, (삼지원, 1999,) pp. 349~350 참조.

68) 구성주의 문예학, 즉 ‘경험사실 구성적 문예학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은 80년대 후반 독일의 구성주의 문예학자인 S.J.슈미트가, 빌레펠트 및 지겐대학의 비보수적 문예학 (NIKOL:Nicht-Konservative Literaturwissenschaft)그룹을 중심으로 결성한 문예학을 말한다. 개별 문학작품에 대한 탐구가 아닌, 독자가 ‘어떻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면서 출발하였다. 즉, 신비평, 구조주의, 기호학, 고전적 소통이론 등과 같이 객관주의적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한 문학 이론들이 추구하는 문학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이나 ‘정확한’ 작

구성'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며 특히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업을 장려하고 있다. 류덕제⁶⁹⁾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수업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수업 모형>

개인적 구성	1. 텍스트 읽기와 독서 목표 설정 2. 텍스트와 관련된 선체험 동원 3. 커뮤니카트 70) 형성
개인 간 구성	1. 개인 반응 기록 2. 반응의 교환 3. 반응에 대한 토론: 소집단 토론
사회적 구성	1. 전체 토론: 학습자와 학습자간 대화, 교사와 학습자간 대화, 해석적 공동체의 상호 작용, 학문 공동체와 대화 2. 비평 텍스트쓰기와 상위 비평: 학습자의 상위 비평, 교사의 상위 비평 3.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가의 의도 찾기를 비판하며 개별적인 작품의 해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구성원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구명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 산출에 근본 목표를 설정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리적 처리 과정을 통해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개별 독자의 해석적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사회적 공인을 받게 되면 비로서 텍스트의 '이해'가 성립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문예학이 문학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해석'위주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 행위' 위주의 해석하기로 전환하였다. 둘째, 기존의 기호론이나 소통론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단순히 정보 이송모델로 보는 데 비해,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보 구성모델로 관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들이 상호 작용의 공동 영역을 구축하여 하나의 공동 기초 위에서 상호 공인적인 영역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협응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작품에 대한 담론들의 정합성은 오로지 토론의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한 의미는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또한 부분적이며 사회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평가되어, 그때그때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획득되는 가 하는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본다. (이상규,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p.74~79, pp.94~96)

69) 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수-학습 모형」, <http://vision.taegu.ac.kr/~ryudi>, 참조

70) '커뮤니카트' (Kommunikat, 즉, 소통소(疏通素))는 개별독자들이 자신의 배경지식 및 생체험을 바탕

‘개인적 구성’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인지과정으로서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개인적 수용행위에 해당하는 단계이면서 읽기 체험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개인 간 구성’단계는 개인적 활동이 제한된 사회 활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활동은 ‘개인 반응 기록’, ‘반응의 교환’, ‘반응에 대한 토론’ ‘소집단 토론’ 등으로 개인 간 소통 초기의 상대자는 짝이나 소집단의 제한된 해석적 공동체이다. 이 단계에서는 동료 간 협동학습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구성’ 단계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인 ‘비평적 텍스트 쓰기’ 활동을 시행한다. 이러한 비평적 텍스트 쓰기와 텍스트 상호성 확대는 문학 교육의 내면화를 포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류덕제의 구성주의 관점 수업 모형을 채택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문학 교과서에 실린 「참회록」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도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실제 수업에서 단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 구성-개인 간 구성- 사회적 구성‘의 단계로 학습내용을 체계화해 보았다.

<구성주의 과점의 수업모형을 적용한 본단원 수업모형>

개인적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 전’ 학습을 통한 동기 유발 2. 교과서 본문에 관련된 선체험 내용 끌어내기 3. 시낭송 활동 4. 구체적인 작품 분석 활동
--------	--

으로 읽어낸 작품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 즉, 텍스트 수용자가 의미 구성을 위해 투사한 모든 것으로 ‘텍스트’를 지각하여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주체의 마음 속에 지각된 텍스트의 의미 소통체이다.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개별독자가 읽어낸 의미, 즉, ‘소통소’를 바탕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협응을 통해 정합성 있는 의미를 도출해 냈으로써, 개별적인 의미 산출의 다의성을 용인하면서도 궁극에는 의미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간 구성 -소집단 학습	1. 시 감상 후 구체적 개인 반응 기록 2. 소집단 활동을 통한 저항성 토론 3. 반응에 대한 서로의 의문점 질의, 토론
사회적 구성	1. 운동주 생애에 관한 학급 전체 토론: 개인 또는 소집단 활동에서 결과발표, 서로 다른 관점들을 교환, 검토 2. 학습 이해 정도 평가 (학습자 상호 평가 및 교사 평가) 3.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

가. 교수-학습 활동 내용 상세화

【개인적 구성 단계】: 시 텍스트 이해

▶ 학습 동기 유발

- ▷ 운동주의 문과 진학 문제로 인한 부친과의 갈등 일화 소개
- ▷ 아버지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 말하기
- ▷ 문학에서 ‘아버지’의 상징적인 의미 확대하여 파악하기

▶ 텍스트 읽기

- 「참회록」시 낭송- 화자의 시적 입장이 되어 읽어 본다.
- ▷ 학생 1명이 대표로 읽고, 다시 각자 소리 내어 읽어 본다.
모둠별로 한 연씩 번갈아 가며 소리를 맞추어 읽어본다.
- ▷ 1930년대의 참혹상을 표현한 플래시로 제작된 영상을 보며
녹음 자료 운동주의 「참회록」을 듣는다.

▶ 학습 목표 설정

- ▷ 학습 목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한다.

1. 운동주 시에서 드러난 ‘아버지 찾기’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운동주의 저항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다.
3. 시를 감상하며 시인 운동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다.

▶시 텍스트 이해와 감상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참회의 사전적 뜻 발표하기, 참회를 해본 경험담 발표

▷시에서 받은 느낌을 간단한 말이나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연상되는 장면을 이야기 하게 한다.

▷1930년대 식민지 치하 일제의 억압 정책에 따른 우리 민족의 고통 받는 사진이나 ‘창씨개명’과 관련된 자료 제시

▷운동주의 참회가 욕된 역사로서 거울보기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시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역사적 주체로서 자기 성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자들이 시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애매한 시어들은 줄쳐보고 함축적인 의미를 발표한다. 시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거나 짝과 함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해간다. 예) 구리거울, 어느 왕조의 유물, 운석, 슬픈 사람의 뒷모양등

▷부분적인 해석이 아닌 시 텍스트 전반적 해석으로 운동주의 ‘부끄러운 고백’의 의미와 ‘밤에 거울을 닦는’ 의미를 발표하게 하고 학습자들에게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서정적 화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3-5줄로 쓰게 하고 직접 말하게 한다.

▷교사는 분석, 종합된 시를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준다

【개인 간 구성 단계】 : 저항성 토론⁷¹⁾

(좌석 배치는 소집단별, 또는 교사중심의 원형 배치)

▶ 소집단 토론,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대화

▷ 창씨개명을 하고 ‘참회록’을 쓴 운동주는 과연 저항시인일까 → 저항성 유무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비평문 제시

*자료 (부록)

1. 창씨개명과 관련된 자료 (송우혜, 「운동주 평전」)
2. ‘독립 운동 혐의로 구속, 옥사와 관련된 자료 (송우혜, 「운동주 평전」)
3. 운동주 판결문 자료 (문학사상, 「운동주 전집」)
4. 오세영 「운동주 시는 저항시인가?」
5. 임헌영 「순수한 고뇌의 절규」
6. 김우규 「운동주를 보는 일본인의 시각- 속죄와 화해를 바라는 양심의 소리」
7. 김종신 「문학과 삶의 만남」 : 저항과 순응

▷ 각각의 자료와 비평문을 읽고 소집단별로 토의한 후 저항시인에 찬성한 집단과 반대한 집단으로 나누고 각자의 입장을 발표한다.

예) **찬성집단: 운동주는 저항시인이다** - ①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후, 일제에서 옥사했다. ② 그를 저항시인으로 만들고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은 시인 운동주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한국인인 것이다. ③ 살아생전에 일제 치하에서 단 한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 ④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했을 뿐이다.

반대집단: 운동주는 저항 시인이 아니다 - ① 그는 창씨 개명을 하였다.

71) 저항성 토론과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 방안은 장동찬, 「운동주 시 교육 방법론 연구」(연세대 교육대학원 1999, 석사)를 일부 참조하였음.

②생전에 저항에 관한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③식민지 현실에서 골방에서 괴로워 할 뿐이었다. 즉 그는 자기 혐오적 고백만 할 뿐이었던 것이다. ④조선의 대학도 아닌 일본의 대학으로 진학했다.⁷²⁾

▷자유롭게 발표하고 질의 토의한다.

▶ 해석적 공동체의 상호작용

▷저항성 유무에 대한 의견 교환 → 시인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찾기’의 의미를 파악하고 운동주가 견지한 입장에 대한 의견 공유

▷소집단 구성원과 협의하거나 각자 쓴다.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답하며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예) 운동주의 시는 나라 잃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과 갈등 현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현실에 대해 자아상실로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운동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시인으로서 개인적 저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해 본다

이와 같은 문학 토론 활동은 학생들에게 반응을 활성화 시킬 기회를 충분히 준다. 따라서 문학 토론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활동이 준비하기 단계에서부터 정리하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요구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반응이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고, 문학 토론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반응은 점차 확장, 심화 되어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게 한다.⁷³⁾

72) 김중신, 「문학과 삶의 만남」, (소명출판사, 2003)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의견 참조.

73) 박희진, 「반응 활성화를 위한 문학 토의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4), 참조.

【사회적 구성 단계】

(4명씩 소집단을 구성하여 토의학습 형태로 좌석 배치전환)

▶비평 텍스트 쓰기

시인 윤동주 이해하기 - 국어 교과서 수록된 「잊지 못할 윤동주」 제시

▷윤동주의 생애나 그의 인간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해본다.

▷자료를 읽고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실행한다.

*자료(부록)

1. 창씨개명 당시 윤동주의 심경 쓴 시작 노트 자료 → 「참회록」을 읽고 윤동주의 창씨개명을 비판하거나 윤동주의 입장을 변호하는 글을 써 보자.
2.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윤동주 이야기 (이누가이 미쓰히로 외 7인, 「일본 지성인이 사랑한 윤동주」) → 과거의 역사의 잘못된 점을 인정한 일본인에게 한국 학생으로서 편지글을 써보자.
3. 송몽규와 윤동주의 최후 죽음에 관한 자료 (송우혜, 「윤동주 평전」) → 송몽규나 윤동주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에게 편지를 써보자.
4. 친일 시 관련 자료→ 친일 시를 쓴 작가에게 비판의 글을 써 보자.
5. 윤동주 묘비명→ 묘비명은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해서 나타낸 준다. 자신이 생각하는 윤동주에 대해서 정리하고 묘비명을 써보자.

▶학습자의 상위 비평, 교사의 상위 비평

▷모둠 별로 돌려 가며 읽게 하고 잘된 글은 전체가 같이 읽는다.

▷앞의 발표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본다.

▷ 자기 생각과 비교하여 친구들의 대답 내용을 비평한다.

예) 친구의 의견이 재미있다면 왜 그렇게 느껴졌는가? 친구의 의견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대에 생각나는 다른 인물 찾아보기

→ ‘운동주에게 있어 조국이라는 아버지’의 의미를 확대하고 문학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한다.

▷ 우리 주변에서 또는 신문이나 TV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중, 우리가 동일시할 만한 사람의 예를 찾아본다.

▷ 전체 학생들이 서로 호응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기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이와 같은 시를 읽고 비평문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의 비평적 기능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심미적 시 이해 기능과 학습 과정의 능동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문학성을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독자가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한다는 역사, 전기적 교육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학생들을 시 이해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비고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코뮤니카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주의 아버지와 의 갈등 - 문과 진학 일화 소개 - 아버지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 발표하기 - 문학에서 ‘아버지’의 상징적 의미 확대하여 파악하기 ▶ 운동주의 시 작품을 읽어 봅시다 ▶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발표 ° 1930년대 참혹상을 표현한 영상들 보며 참회록 감상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PPT를 이용하여 그림 자료를 보여준다.	5분
개인적 구성	· 시 텍스트 이해와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회록> 제목 보고 연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운동주의 참회가 육된 역사로서 거울보기 라는 측면에 주목하며 시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 시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거나 짝과 함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해 간다. 예) 구리거울, 어느 왕 조의 유물, 운석, 슬픈 사람의 모양 등 ▶ 운동주의 ‘부끄러운 고백’의 의미와 ‘밤에 거울을 닦는’ 의미를 발표해 봅시다. ▶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서정적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표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읽기 학생 발표 		10분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비고
		교사	학생		
개인 간 구성 소집 단 토론	·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 · 해석적 공동체의 상호 작용 · 저항성에 대한 토론	<p>▶ 창씨개명을 하고 ‘참회록’을 쓴 운동주는 과연 저항시인일까 → 저항성 유무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비평문</p> <p>1. 창씨개명 자료 2. ‘독립 운동 협의회’로 구속, 옥사와 관련된 자료 3. 운동주 판결문 자료 4. 오세영 「운동주 시는 저항시인가?」 5. 임현영 「순수한 고뇌의 절규」 6. 김우규 「운동주를 보는 일본인의 시각」 7. 김종신 「문학과 삶의 만남」 : 저항과 순응</p>	<p>° 각각의 자료와 비평문을 읽고, 단별 후 운동주가 저항성 집단인 것에 대한 반대로 각자의 발표를 시인에서 이끌어내는 아버지의 의미 파악하고 운동주 견지한 입장 공유</p>	· 자문소토운항성파단집고장다계국아버지의 의미 파악하고 운동주 견지한 공유 · 도록에 유의성 · 자분서되유로기한 · 자분위성 · 도록에 유의성 · 자분위성 · 자분위성	10분
사회 적 구성 전 집 단 형 태	· 비평 텍스트 쓰기 · 학습자의 상위 비평 교사의 상위 비평 (평가)	<p>▶ 자료를 읽고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실행한다.</p> <p>1. 창씨개명 당시 운동주의 개명을 바라본 운동주의 입장을 글 써 보자. 2. 일본인이게 편지글 쓰기 3. 송몽규와 운동주의 묘비명 쓰기 4. 친일시 관련 자료 5. 운동주 묘비명 쓰기</p>	<p>° 「참회록」을 읽고 운동주의 창씨개명을 비평관장을 글 써 보자. ° 일본인이게 편지글 쓰기 ° 운동주 묘비명 쓰기</p>	· 자료제공	10분
학습 내 정 리 차 시 예 고	·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 학습 내용 정리	<p>▶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대에 생각나는 다른 물 찾아보기</p> <p>▶ 차시를 예고한다.</p>	<p>‘조국이라는 아버지’의 의미 해석, 문학 내용 생활에 적용.</p>		10분

3.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란 각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학습 활동과 자료를 선택하여 이를 가지고 학습할 순서를 결정하고, 학습자들끼리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등 모든 학습 활동에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 내용 간에 유기적 관련을 맺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⁷⁴⁾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방침에 따라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도 학습자가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므로 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인생관을 형성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텍스트’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 학습 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소설은 ‘길 찾기’의 모티브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고민들이 발전하여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길’은 그것이 인생의 진리를 포함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의 소재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 시 속에서 우리는 시적화자를 통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 반드시 어떤 길을 걸겠노라는 확신에 찬 모습, 또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갔다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⁷⁵⁾ 따라서 이상적 자아상을 회복하는 운동주의 ‘길’ 시편을 통해 학생들은 평범한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는 그의 자아탐색의 과정을 쉽게 공감하며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74) 신현재 외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p.15.

75) 소래섭 외 「관악산 수재들의 문학캠프」 (살림, 2003). p.20 참조.

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시의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 감상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활동 중심의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운동주의 시 「길」을 선택하여 학습자가 교육연극을 실행해보는 방안과 같은 소재, 다른 시인의 ‘길’ 시편을 비교해 보는 상호텍스트성 교육 방안을 함께 제시해보겠다.

(1) 지도방법

경규진의 반응중심 수업모형⁷⁶⁾은 로젠블래트의 반응 중심 문학 교육 이론⁷⁷⁾을 적용한 모형으로 신비평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텍스트 중심 문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모형은 계획과 진단, 평가의 단계는 생략하고 지도단계만을 모형화 하였는데, 학습자와 텍스트와의 상호 관련을 중시하여 학습의 단계를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에서 출발하여 학생과 학생의 거래,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경규진 반응 중심 수업 모형>

단 계	과 정	세 부 내 용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 래]	반응의 형성	(1) 작품 읽기 ·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2단계	반응의	(1) 반응의 기록

76) 경규진, 「반응 중심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77) 반응중심 문학교육론은 하나의 작품을 읽는 독자마다 개별 학생마다 그 반응이 다르며, 이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하여 독자의 능동성을 장려하면서 작품에 대한 심미적 읽기를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문학 감상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 281 참조).

<p>[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p>	<p>명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과 반응의 교환 (2) 반응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을 명료히 하기 위한 탐사 질문 ·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 반응의 반성적 질문 ·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3) 반응에 대한 토의 (또는 역할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과 의견 교환 · 전체 토의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의 자유 쓰기 · 자발적인 발표
<p>3단계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p>	<p>반응의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작품의 연결 (2) 텍스트 상호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도 측정

본고에서는 학생의 반응과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연극과 상호 텍스트성 교육 방안을 시 교육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모형을 개발 할 것이다. 경규진의 반응 중심 수업 모형에서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의 순서를 원용하고, 각 단계의 교수, 학습 내용 중 본고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택해서 모형을 설계한다. 문학 교과서에 실린 「길」을 중심으로 위 표의 굵은 글씨를 토대로 내용 구성 도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실제 수업에서 단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체계화 해 보았다.

< 경규진의 반응 중심 수업 모형을 적용한 본 단원 수업 모형 >

단 계	과 정	세부 내용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반응의 형성	텍스트 분석하기 1. 시적 경험을 환기시키기 2. 시 낭독하기 3. 운동주 「길」 구체적 작품 분석 활동
2단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 명료화	역할놀이 활동 ⁷⁸⁾ 1. 운동주 「길」 작중 상황 연행하기 2. 운동주 「길」 대사 연행하기 3. 시로 드라마 만들기 4.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화 하여 극본 짜기
3단계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	반응의 심화	「길」 상호텍스트 분석 1. 김소월 「가는 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비교하여 분석 2. 「길」의 상징적 의미 파악 3. 패러디 시 창작하기

가. 교수-학습 활동 내용 상세화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길」 텍스트 분석하기

78) 역할놀이는 교육연극의 활동방안과 관련된 용어로, 교육연극은 '연극'이라는 예술장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극적 기술과 방법을 교육적 목적을 가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역할놀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교육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학습 동기 유발

- ▷ 운동주의 ‘길 찾기’ 시작을 예고하는 작품인 「새로운 길」 소개
- ▷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독백 부분 한 장면 소개
- ▷ 프랭트 시나트라 팝송 「MY WAY」나 가요 GOD의 「길」 감상
- ▷ ‘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말하기 예) 미아가 된 경험, 보물섬 찾기 등
- ▷ 문학에서 ‘길’의 상징적 의미 확대하여 파악하기

▶ 텍스트 읽기

「길」시 낭송 -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상의 전개 과정에 유의하며 읽어본다.

- ▷ 학생 1명이 대표로 읽고 다시 각자 소리 내어 읽어본다.
모둠 별로 한 연씩 번갈아 가며 소리를 맞추어 읽어본다.
- ▷ 길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을 보며 녹음 자료 운동주의 「길」을 듣는다.

▶ 학습목표 설정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운동주 시에서 드러난 ‘길 찾기’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2. 연극 활동을 통해 시의 정서를 깊게 체험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3. 「길」을 소재로 한 다양한 시작품 읽기를 통해 운동주의 ‘길’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

- ▷ ‘학습목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한다.

▶ 시 텍스트 이해와 감상

▷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킨다.

예) 지름길, 도보여행, 지도, 인생,

▷ 시에서 제시된 운동주가 서 있는 길의 모습을 그림이나 선으로 나타내본다.

▷ 운동주 ‘길’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한다. 애매한 시어들은 줄쳐보고 짝과 함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해간다. 예) 길, 돌담, 쇠문, 하늘 등

▷ 부분적인 해석이 아닌 시 텍스트 전반적 해석으로 시적 화자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적화자가 잃어버린 것과 시적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 학습자들에게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서정적 화자의 입장을 생각해 서 3-5줄로 쓰게 하고 직접 말하게 한다.

▷ 교사는 분석, 종합된 시를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준다.

2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교육 연극 활동⁷⁹⁾

(6명씩 모둠별로 구성하여 연극 활동 무대와 토의공간으로 배치 구분)

▶ 연행 전 단계

▷ 준비, 워밍업 단계로 창의적 가정에 의해 타자와 동일시하는 분위기를

79) 교육연극의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하윤정의 논문 「교육연극을 활용한 시 교육 방법연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을 일부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고조시키며 연극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에서 해방되어 타자로 가정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이완을 시켜준다. 예): 신체 스트레칭, 아에이오우 입 풀기, 발성 연습, 자아상에 대한 진실게임, 자신을 소개하는 아이엠 그라운드, 간단한 노래나 율동으로 유도

▷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운동주의 시적 상황을 떠올리며 화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 일종의 연행으로서 시를 낭독한다.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감정과 호흡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운동주의 목소리가 되어 감상한다.

▶ 연행 단계

▷ 학생들이 연행 전 단계에서 형성한 개별적 반응들을 모듬 구성원들과 함께 재구성하여 극화하고 다른 모듬의 극화를 관람하면서 그들의 시 해석을 수정하고 정교화할 수 있게 한다.

◆ 본격적으로 연행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시에 대한 일차적 반응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연극의 언어적 활동으로서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 극중 인물과의 대화(hot seating)

▷ 운동주 시 「길」에 나오는 배역 (자아, 이상적 자아)들을 불러내어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다. 아직 연행을 하기 전 단계이므로 역할을 맡은 학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답하여야 한다. 질문과 대

답을 통해 사건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다.

▷ 작품 속의 인물이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시적 상황을 구체화시키며 배역을 맡은 인물에게 주위 환경에 대해 설명하게 함으로서 관객으로서의 학생들에게 시적 환경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 인물이 처해있는 문제 상황을 다 함께 논의하면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학생 스스로 정말 작품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시)

관객 (시적화자가 된 주인공 학생에게)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화자 저는 긴 길이 끝없이 이어진 돌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관객 당신이 그 곳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자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 연행을 직접 수행하기 전 감정 이입을 위해 운동주와의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연극의 언어적 활동으로서 빈 의자 기법을 시도한다.

▶ 빈 의자 기법(empty chair)

▷ 교사는 빈 의자를 무대 중앙에 놓고 주인공 학생과 관객 학생들에게 누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적화자인 운동주로 가정한다.

▷ 주인공이 운동주를 묘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주인공에게 운동주에 대하

여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한다. 주인공이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쏟아 놓고 나면 주인공으로 하여금 운동주가 되어 의자에 앉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 학생은 먼저 화자에게 말하고 다음에 화자가 되어 다시 말해봄으로서 화자의 어조, 화자의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시)

학생 (운동주에게) 당신은 매우 어리석군요.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고 현실이 바뀔까요?

운동주(학생이 가정한다) 저도 진정한 자아를 찾겠다고 세상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적 장애물이 저를 가로막는다 해도 저는 저의 길을 찾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 입니다. 그것이 암울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 연행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연극무대, 소품, 복장 등)을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꾸며본다. 운동주 시 「길」은 이미지 중심으로 상징적 시어들이 주축을 이룸으로 연극적으로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 연극의 언어적 활동으로서 토론 연극을 시도한다.

▶ 토론 연극

▷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 없이 일반 연극과 같이 진행된다. 그러다가 중간에 토론 연극의 리더가 연극을 멈추고 관객 학생들에게 주인공이 제안한

시적 상황과 해결법에 동의하는지 질문을 한다.

▷ 관객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장면에서 두 번째로 공연을 다시 진행시킨다. 이 때 주인공 학생은 관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나은 해결책으로 극을 바꾼다.

▷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윤동주 시 「길」에서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갈등 측면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토론 연극을 진행하며 시의 이미지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한다.

▶ 시로 연행하기

▷ 시의 해석적 감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재창조의 과정으로서 연행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적인 정보인 시어를 통해 장면을 구체화시켜 연극을 구성한다.

(예시)

1연:(허리에 바닥을 끄는 기다란 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단 주인공 학생이 등장하여 주머니 하나하나를 열어본다. 안에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며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며 무대를 걷는다)

시적 화자: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잃어버린 지도 모른 채

2연:(돌담 역을 맡은 학생들이 두 줄로 서서 일렬로 손을 들어 아치형의 문 모양의 길을 만든다. 주인공 학생이 아치형의 길을 통과하며 독백한다)

시적 화자: 끝없이 이어진 돌담길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3연:(아치형의 길의 끝에선 두 학생은 손을 내려 주인공 학생을 가로막는다)

시적 화자: 담은 쇠문을 걸어 잠그고 나의 갈 길을 막아 세웁니다.

(그림자를 상징하는 검은 색 티를 입은 학생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누워 대사를 한다)

그림자: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거야.

4연:(해를 상징하는 붉은 색 모자를 쓴 학생이 의자에 올라가 괘종시계를 올리고 내려오고 달을 상징하는 노란 색 모자를 쓴 학생이 이어 의자에 올라가 괘종 시계를 올리고 이 동작을 반복한다.)

시적화자: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는 그 무언가를 찾지만...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5연:(시적 화자가 돌담을 상징하는 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면 비를 상징하는 학생이 물 조리개를 뿌린다. 비를 맞으며 주인공 학생이 대사를 한다)

시적화자: 돌담을 더듬으며 나는 숨죽여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조명을 맡은 학생이 불을 주인공에게 환하게 비춘다. 비를 맞던 시적화자가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 우산을 갑자기 펴서 천장을 바라본다.)

시적화자: 아닙니다. 하늘은 이렇게 푸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연:(대머리 가발을 쓴 학생 여럿이 지나간다.)

시적화자: 풀 한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아치 형 길 밖에서 이상적 자아를 맡은 흰 옷의 학생이 손을 흔든다.

이상적 자아: 담 저쪽에 믿을 수 있는 너 자신이 있기 때문이야.

7연:(시적화자가 길 끝에서 반대로 돌아 아치형의 길을 맡았던 학생들과 차례로 하늘을 향해 손뼉을 치며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길 밖의 이상적 자아에게 달려가 포옹한다.)

시적화자, 이상적 자아: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까닭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표현하므로 서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운동주가 처해있는 절망적인 현실로 연극적으로 재구성해 그려내도록 한다. 일제치하라는 상황을 강조해 극의 의미를 확장시켜 꾸며 볼 수도 있다.

▶ 연행 후 단계

▷ 연행이 끝나면 곧바로 학생들과 교사 간에 그 연행과 관련된 의미를 공유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행을 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장면을 연출한 의도를 묻게 하고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발표하게 한다.

▷ 관객 학생들에게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느낀 점과 간단한 감상평, 수업에 대한 비평문을 적게 한다.

▷ 교사도 자신의 느낀 점이나 극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활동을 다시 평가해 보게 한다.

◆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화 하여 극본 짜기

▷ 시적화자를 운동주로 한정하지 말고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화 하여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길을 소재로 극본을 재구성하게 한다. 정지장면의 행동 중심의 극이 아니라 이때는 대사 중심의 내러티브 드라마를 구성해 보도록 한다.

▷ 주인공 화자를 자신으로 두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며 길 위에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 모듈별로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표현한 내용에 대해 먼저 모듈별로 느낌을 나누게 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체 학습 형태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의하여 보충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 재구성한 학생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었으며 또 같은 시를 수용자

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도록 한다.

▷ 반응 공유하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일인 독백극 하기, 인터뷰하기,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나누어 재 실연한다.

3 단계 :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거래 : 「길」 상호텍스트성 학습

▶ 대상 텍스트의 기본 내용 파악

(1) 운동주의 「길」

운동주 시의 ‘길’은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또한 잃어버린 자신의 참모습 (이상적 자아) 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서 자아 성찰의 공간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길’은 ‘돌담’으로 나뉘어져 있는 길이다. ‘돌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담의 이쪽과 저 쪽을 단절시킴으로써 ‘담 저쪽’에 ‘남아있는’ 이상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임과 동시에 현실적 자아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암울한 현실의 상징물이다. 결국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길을 걷는 행위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자아 성찰의 과정 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며 시간의 순환과 함께 길 역시 계속되어 살아가는 동안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탐색의 일이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절망감에 빠져 ‘눈물짓’는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쳐다본 ‘푸른 하늘’을 통해 시적화자는 현실에 절망하고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하늘’은

시적 화자의 현재 모습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자아성찰의 '길'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다시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풀 한포기 없는' 불모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시련을 극복한다는 정신적 의미를 지닌다. 80)

▶ 상호텍스트 성에 의한 수업

(2) 김소월,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룹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은 그의 시에서 종종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길 위에서 유랑하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노래한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노래하는 고향 상실의 정서에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자신의 농토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일제 시대 실향민의 비애가

80) 김윤식 외 「디딤돌 문학」, (디딤돌 출판사, 2006. 2) P. 186~187 참조.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소월의 「가는 길」에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보이지 못하고,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라며 망설이고 있다. 시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움과 망설임, 그리고 아쉬움의 내면 심리가 간결하게 표현된 김소월의 「길」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든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배경으로서 드러난다. 1, 2연에서 화자는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단호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이라는 구절을 통해 입을 무척이나 그리워하면서도 ‘그립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잊어버리고서 ‘그냥 가자’고 마음 속으로 다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시 더 한번’이라는 미련이 생겨난다. 불확실한 자신의 길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자의 마음은 3, 4연에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한 길로 연달아 흐르고 있는 강물의 모습과 해가 진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지저귀는 가마귀와 대조되면서 더욱 부각된다. 81)

(3)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덩굴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81) 소래섭 외 「관악산 수재들의 문학캠프」(살림, 2003), p. 23~24 참조.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프로스트의 ‘길’은 추상적 의미로서의 길로 ‘인생의 길’, 즉 ‘운명의 선택’을 상징하고 있다. 1, 2 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연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적 화자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길이 인생의 행로를 상징하는 말이라면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 걸은 자취가 적어’라는 시구를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적게 선택한 인생의 길을 갔음을 의미한다. 제 3연에서는 시적 화자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 두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가지 않은 다른 길을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화자에게 있어 두 길을 똑같이 아름다웠으며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는, 외관상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두 길, 즉 두 가지 인생에서 차이는 길이 아닌 바로 인간이 택한 길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적화자는 보편적 정서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가 두 길 중 하나

를 선택했을 때, 각각의 선택이 만들어 줄 결과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떠했을까 라는 의심을 항상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그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하며 시를 끝맺는다.⁸²⁾ 그는 시를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 가지 길만을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인생의 한 갈래의 길만을 선택해야 함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선택한 길로 인해 자신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밟아 나갔으며 지나간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자신이 선택을 아쉬워할 지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원 텍스트와 대상 텍스트의 비교 대조

- 세 작품의 ‘길’에 대한 차이점을 작품 전체를 통해 알아보자.
- 세 작품의 ‘길’ 위에 있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각각의 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 세 작품에서 ‘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상호 텍스트에 의한 내면화

- ‘길’의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고 자신의 ‘길’에 대한 이미지를 정리해서 스스로의 ‘길’의 의미에 대해 내면화해보자.
- 「길」을 패러디하여 자신의 길에 대한 시를 창작해보자.

나. 교수-학습 지도안

82) 한샘문학교육연구회, 「한샘 종합문학」, (한샘출판사, 2006). p. 92~93 참조.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비고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출결사항 확인 ·전시학습 내용 상기 ·학습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주의 '길 찾기' 시작을 예고하는 작품인 「새로운 길」 소개 ◦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독백 부분 한 장면 소개 ◦ 프랭트 시나트라 팝송 「MY WAY」나 가요 god의 「길」 감상 ◦ '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말하기 예) 미아가 된 경험, 보물섬 찾기 등 ◦ 문학에서 '길'의 상징적 의미 확대하여 파악하기 	학생 발표		5분
1단계 텍스트와 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에 충실하기 ·반응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주의 시 작품 「길」을 읽어봅시다. ▶ 학습목표 제시 ◦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킨다. ◦ 운동주 '길'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한다. 예)길,돌담,쇠문,하늘 ◦ 시적 화자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적 화자가 잃어버린 것과 시적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발표해봅시다. ◦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서정적 화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3-5줄로 쓰고 발표해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 자료를 보며 운동주의 「길」을 듣는다. 학생 발표 	PPT를 이용하여 그림 자료를 보여준다.	10분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비고
		교사	학생		
2단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텍스트 새롭게 하기 :반응의 명료화 교육 연극 연행하기	<p>▶ 연행 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워밍업 단계로 창의적 가정에 의해 타자와 동일시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연극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p>▶ 연행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 대한 일차적 반응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위해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시도 ▷ 운동주와의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빈 의자 기법을 시도 ▷ 연행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연극무대, 소품, 복장 등)을 토론 연극을 통해 꾸며본다. ▷ 장면 구체화: 연극구성 <p>▶ 연행 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연행하기 ◦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짜 		10분
3단계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련	.텍스트 다시 보기 :반응의 심화	<p>▶ 대상 텍스트의 기본 내용 파악</p> <p>(1) 운동주의 「길」</p> <p>▶ 상호텍스트 성 비교</p> <p>(2) 김소월, 「가는 길」 (3)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각각의 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 세 작품에서 「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료 PPT	10분
학습 내용 정리 차시 예고	.시 내면화하기 .학습 내용 정리	<p>▶ 상호 텍스트에 의한 내면화</p> <p>▶ 차시를 예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을 패러디하여 자신의 길에 대한 시를 창작해보자. 		10분

4. 인성교육 측면에서 교수-학습

운동주의 시는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자아성찰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시를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고민하는 그의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음미하고 관찰하며, 자신을 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 모습의 일괄성과 독자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내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인성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들의 삶과 관련된 적성, 소질, 재능 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배우며 자신의 내면적 힘을 기르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자아정체감 찾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⁸³⁾

본 장에서는 운동주의 시의 주된 테마로서 자아정체감을 주제로 한 인성교육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따라서 우선 본 장의 교수-학습의 근간이 되는 인성교육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은 전인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때로는 ‘참교육’, ‘인간교육’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는 교육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긍정적인 세계관과 자아관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뜻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도

83) 최숙자,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아탐색 프로그램 구안」, (창원대 교육대학원, 1991)

덕성이나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⁸⁴⁾ 정기철은 「인성교육과 국어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기본원리를 다음 10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성장시 교육과 관련 있는 인성교육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로 첫째는 자기 성찰의 원리가 있다. 인성교육의 시작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서 인성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모습과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게 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그 위에 새로운 모습과 위치를 설정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원리가 있다. 인성교육은 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남이 결국 ‘나’가 되는 것이 사회생활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곧 나를 형성하는 요인인 만큼 인성 교육을 위해 관계성을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순화의 원리가 있다. 정화(카타르시스)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을 표출하여 충동적인 감정이나 소극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진정한 순화는 개인의 감정 표출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감정과 각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나’를 설정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동일화의 원리가 있다. 동일화란 주변 인물이나 사물에게 이입과 대입을 통해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 또는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 인물과 사물에 대해 동일화를 이루었을 때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삶과 나의 의미를 확대하고 교감 할 수 있다. 이 때 경험하는 확대와 의미는 ‘나’의 내재된 인성의 힘이 된다.

84) 김춘성, 「중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마지막으로 자기 실천의 원리가 있다. ‘자기표현’을 통해 학습자들 자신이 느끼고 계획한 것을 표현하고 토론과 같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면 인성교육은 추상적인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표현을 통해 ‘나’와 내 이웃에게 작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인성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하였을 때 인성교육은 완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 속에서 자신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⁸⁵⁾

이상과 같이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구도는 ‘나’에서 떠나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구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절차는 ①현실의 ‘나’를 정확하게 알고 ②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③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나’를 대입, 이입하여 동일화를 이루고 ④새로운 ‘나’를 계획하고 ⑤‘나’를 실현하는 과정을 완수하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주요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실현을 주요한 덕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어떠한 인간이며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개인행동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인성덕목들의 기본이 되고 있다.⁸⁶⁾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운동주의 시작품을 통해 청소년기 자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⁸⁷⁾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개인-가족-친구

85)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역락, 2001, p. 36~50)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86) 이지현 「인성개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전남대 교육대학원, 2001)

87) 서진석, 「자아발견을 위한 문학의 이해와 표현」, (전국국어교사모임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njoyschool.net>.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로 확대되는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화상을 형성하도록 이해, 표현 활동을 구성하였다.

(1) 지도 방법

<시간 속의 나>

1. 노래듣기: 스케치북 (토이)
2. 그림감상: 자화상(윤두서, 고희, 피카소, 렘브란트, 프리다 칼로)
3. 시 읽기: 자화상 (운동주)
4. 나의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5. 모방시 쓰기 : 자화상 (노천명)

<관계 속의 나>

6. 자아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 자전적 서사쓰기
 - (1) 나를 알기 위한 20문 20답
 - (2) 부모님의 삶 이해하기
 - (3) 가족나무 그리기
 - (4) 자전적 서사쓰기
7. 운동주의 「소년」시 읽고 뒷 이야기 쓰기

<미래를 향해>

8. 노래 듣기: 전설속의 누군가처럼 (신승훈)
9. 닮고 싶은 인물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 듣기
10.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가. 교수-학습 활동 내용 상세화

<시간 속의 나>

(가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파란 하늘처럼 하얀 초생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붓을 들 땀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팔레트 위에 놓인
 몇 되지도 않는 물감들은 서로 날 유혹해
 화려한 색칠로 (붓을 냈지만) 들여다보면 어색할 뿐
 고민하지마 너 느끼는 그대로 (너의) 지금 (모습) 솔직하게 그리면 되잖
 니
 걱정하지는 마 니 작은 꿈들을 (칠할)하얀 (공간)아직 충분히

 편협했던 내 비좁은 마음 무엇을 찾아 헤매인 걸까
 내 옆에 있어 준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현실이란 이유 (그것만으로) 이기적인 삶 걸어왔지
 고민하지마 좀 잘못되면 어때(처음)부터 (다시)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좀 서투르면 어때 (그런) 너의 (모습)아름답기만 한 걸

▶ 1. 노래듣기: 토이의 ‘스케치북’

▷ 다음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느낌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 2. 그림 보기 : 자화상을 주제로 한 그림



▷ 자화상을 주제로 한 그림을 보고 자신의 사진을 정리해보며 과거-현재-미래의 변화상을 적어보자.

▶ 3. 시 읽기 운동주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위 시에서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인 자신만의 ‘우물’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며 자신이 가장 밋게 느껴졌던 일을 기억해보자.

▷ 위 시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장 가엾게 느껴졌던 일을 기억해 보자.

▷ 나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을 기억해보자.

▶ 4. 자신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등 인생의 상하곡선을 나의 인생 곡선 그래프를 통해 작성해보자.

+	
-	

▶ 5. 모방시 쓰기.

자화상(自畫像)

노천명

5천 1촌 5푼 키에 2촌이 부족한 불만이 있다. 부얼부얼한 맛은 전혀 잊어버린 얼굴이다. 몹시 차 보여서 좀체로 가까이하기 어려워한다.

그런 듯 술한 눈썹도 큼직한 눈에는 어울리는 듯도 싫다마는…….

전시대(前時代) 같으면 환영을 받았을 삼단 같은 머리는 클립지한 속에 예술품답지 않게 얹혀져 가냘픈 몸에 무게를 준다. 조그마한 거리낌에도 밤잠을 못자고 괴로워하는 성격은 살이 머물지 못 하게 학대를 했을 게다.

꼭 다문 입은 괴로움을 내뿜기보다 흔히는 혼자 삼켜버리는 서글픈 버릇이 있다. 삼 온스의 살만 더 있어도 무척이나 생색나게 내 얼굴에 쓸 데가 있는 것을 잘 알건만 무디지 못한 성격과는 타협하기가 어렵다.

처신을 하는 데는 산도야지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조그만 유언비어에도 비겁하게 삼간다. 대(竹)처럼 꺾이는 질지언정 구리모양 휘어지며 꾸부러지기가 어려운 성격은 가끔 자신을 괴롭힌다.

▷ 윤희주의 「자화상」 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쓴 노천명의 「자화상」 을 읽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찾아보자.

▷ 노천명의 「자화상」 을 모방하여 나의 자화상을 시로 써보자.

유의점: ▷ 도입부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쓸 것

▷ 중간 부분은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쓸 것

▷ 자신의 자화상을 모듬 사람들과 돌려보고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화상과 타인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것.

<관계 속의 나>

▶ 6. 자아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 자전적 서사쓰기

▷ (1) 나를 알기 위한 20문 20답 : 스스로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추가할 질문은 자신이 생각해서 더 첨가하여 부모님, 할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인터뷰한다.

(예) 1. 자신이 태어난 날은 언제이고 어머니의 태몽은 무엇이셨나?

2.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3. 어린 시절 나의 성격은?

4. 어린 시절 가장 무서웠던 경험은?

5. 어린 시절 즐겨했던 놀이는?

6.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담임선생님의 특징과 추억은?

7.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8.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연예인은?

9. 중학교 시절 잊을 수 없는 추억은?

10.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성적표는?

11. 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12. 내 마음 속의 이상형은?

13.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의 특징은?

14. 내 인생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15.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부모님의 삶 이해하기: 부모님과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1. 우리 아빠, 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모님께)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떤 자식이셨나요?

2. 우리 아빠, 엄마의 닮고 싶은 부분과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

(부모님께) 청소년기의 자신의 성격이나 특이한 행동, 버릇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3. 내가 커서 아빠, 엄마가 된다면 어떤 부모님이고 싶나?

(부모님께)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와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요?

4.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이란?

(부모님께) 한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5. 부모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나요?

◆ 인터뷰 한 영상을 홈비디오에 담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돌려보자.

◆ (3) 가족나무 그리기

▷ 부모님과 자신의 발모양의 본을 도화지에 떠서 나뭇잎을 완성하고 가족의 발 모양 안에 가족의 자랑과 특징을 적어본다..

▷ 부모님과 자신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 넣은 공 모양의 열매를 만들어 본다.

▷ 집 안의 가훈이나 가장 큰 목표를 나무 몸통에 적어본다

▷ 가족들의 사진을 오려 뿌리 속에 오려 붙인다.

◆(4) 자전적 서사쓰기

- ▷ 나를 알기 위한 20문 20답을 참고로 시기별 자서전을 쓴다.
- ▷ 출생부터 고등학교 현재의 모습까지 시기별 자서전을 완성해 본다.
- ▷ 중요한 일이 있었던 순간을 중심으로 주제별 자서전을 완성해 본다.
- ▷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자서전 발표회를 열고 문집을 발간한다.
- ▶ 7. 운동주의 「소년」시 읽고 뒷이야기 쓰기

소 년

운동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쫓아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어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 ▷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본 경험을 떠올리며 위의 시를 낭송해 보자.
- ▷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적어 보자.
- ▷ 눈을 감고 운동주의 「소년」에 나오는 시적 화자의 입장이 되어 그리운 얼굴, 순이를 떠올려 보자.

▷ 운동주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그리운 순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며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 편지지에 그리운 대상의 얼굴을 그려 넣고 이야기를 꾸며보자

<미래를 향해>

▶ 8. 노래 듣기 : 신승훈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가사)
거울 속의 그대 모습을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 본 적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젠 한번 생각해 봐 그대 안에 다른 널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거야
아주 작은 새의 몸짓도 이 세상 봄이 움을 알게 하는데
Can you see a whole new world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No one know the way you feel 그대 아직 늦지 않았어
두 팔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고 You can soar and touch the
sky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를 향해 훨훨 날아 봐
We believe, we believe that you can fly
진흙 속에 피는 꽃들도 그 어느 꽃보다 더 향기로운데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그대 아직 늦지 않았어 두 팔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고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를 향해 훨훨 날아 봐

▶ 9. 읽고 싶은 인물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 듣기

▷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기

▷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보자.

▷ 닳고 싶은 인물의 경험담을 토대로 나의 미래를 계획표를 작성해보자

▶ 10.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 성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성인이 된 나의 입장에서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자

▷ 친구들과 돌려가며 읽어보고 감상하자.

▷ 편지를 타임캡슐 속에 넣고 20년 후에 다시 꺼내 읽어보자.

V. 결 론

운동주는 한국문학의 암흑기라 일컫는 1940년대 초반에 걸쳐 활동한 시인이다. 하지만 유년시절 외에는 살아생전 자신의 시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단의 평가는 운동주의 죽음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1948년,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가 발간되면서 그의 작품에 많은 문학 연구가와 비평가들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졌다.

운동주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한용운, 이육사와 더불어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희생된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운동주는 주요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매 해 교육과정에 여러 편이 수록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바꾸어 운동주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과서에서 운동주의 시를 저항시의 측면에서만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 외에도 성장시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보탬이 되는 문학작품으로써 더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운동주의 시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운동주 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성장시 측면에서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운동주의 성장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성장의 동일화 과정인 아버지 찾기의 모티브로서 운동주의 성장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운동주는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신

이라는 아버지, 조국이라는 아버지, 도덕률이라는 아버지를 찾고자 했으며 겨울이미지를 통해 성장기의 잃어버린 자아의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아픔과 성숙을 운동주는 그의 작품에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논의해 보았다. 운동주는 불특정한 대상인 ‘순이’를 내세운 세 편의 시를 통해 사랑보다는 이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그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길의 발견과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모티브로서 성장소설의 주제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 찾기’와 함께 어른으로 나아가는 ‘길 찾는 과정’을 운동주는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운동주의 길 찾기는 시를 쓰기 시작한 18살 성장기부터 예술적 자아의 내적 의지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치하 속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면서 현실에서의 예술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어서 운동주 시가 수록된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의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7차 문학교과서에서 수록된 작품은 「서시」, 「참회록」, 「십자가」, 「별 헤는 밤」, 「쉽게 씌어진 시」, 「또 다른 고향」, 「자화상」, 「길」, 「아우의 인상화」으로 총 9편이다. 이들 작품이 수록된 출판사 수는 11개 출판사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과 ‘문학과 문화’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주된 관점인 ‘운동주 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는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운동주 시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화 측면에서의 교수-학습 면에서는 류덕제의 구성주의 관점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 운동주 시가 지닌 아버지 찾기의 의미를 조국에 대한 일체 말기의 저항시 측면에서 논의해보도록 하였다. 「참회록」에서 각각의 자료와 비평문을 읽고 소집단별로 토의한 후 저항시인에 찬성한 집단과 반대한 집단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게 한다. 이어 시인에게 있어 ‘조국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찾기’의 의미를 파악하고 운동주가 견지한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게 하며 다양한 비평 텍스트 쓰기 활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의 확대로서 우리 주변에서 또는 신문이나 TV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중, 우리와 동일시할 만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게 하였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면에서는 경규진의 반응중심의 수업모형을 적용하고 운동주의 ‘길 찾기’ 모티브를 통해 학습자가 주체 되어 성장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고민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과정일 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감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운동주의 「길」을 선택하여 학습자가 교육연극을 실행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적화자를 운동주로 한정하지 말고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길을 소재로 극본을 재구성하게 한다. 상호텍스트 관점에서는 운동주의 「길」과 김소월의 「가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비교해보고 세 작품의 ‘길’ 위에 있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각각의 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한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여 문학 능력을 심화하도록 「길」을 패러디하여 시를 창작해보도록 하였다.

셋째,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교수-학습에서는 직접적인 인성 교육 모형을 선택하여 운동주 시의 주된 테마로서 자아정체감을 주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인성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운동주의 「자화상」과 성장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 미술사에서 자화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어 개인-가족-친구로 확대되는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 자전적 서사쓰기 활동과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또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의 미래 계획표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제시했다. 성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성인이 된 나의 입장에서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운동주 성장 시에 대한 이 같은 세 가지 층위별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기존의 운동주 시의 학문적 연구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들을 토대로 7차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시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시의 개념에 대한 자료 보조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보다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비단 시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장르, 영화, 만화, 게임, 각종 영상 매체 등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21세기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에 있어 보다 온전한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 수업에 직접 투입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였다. 성장시의 주제와 내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동주 시의 형식적인 면을 다루지 못함을 연구의 한계성으로 시인하면서 성장시의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이 분야의 연구 업적이 미흡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 문제를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부록1. 1930-40년대 사진 자료

1) 창씨 개명하는 사람들



2) 조선 신국에 강제로 참배하는 학생들



▶ 윤동주 사진 자료



윤동주(오른쪽 위) 와 송몽규(가운데)



윤동주의 묘



윤동주 자필 원고



윤동주 연희전문학교 졸업사진

▶부록2. 저항성 토론 자료

1)창씨개명과 관련된 자료

연전졸업 후의 진로는 윤동주와 송몽규 둘 다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 과정을 밟기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1942년이란 시점에서 도일하여 유학하자면 먼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창씨개명’이었다. 창씨개명이 되지 않으면 입학은 둘째 치고 우선 일본에 건너가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인 ‘도항증명서’ 자체를 땔 수 없었다. 그것은 현해탄을 건너는 배를 타려면 꼭 필요한 서류였다. 졸업 직후 북간도에 귀향했다가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졸업한 모교 연전에 가서 창씨개명 계를 제출했다. 졸업증명서 등 일본 대학 입학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창씨개명 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보관된 연전 학적부에 이들이 창씨 개명한 이름과 그 이름을 제출한 날짜에 관한 기록이 명료하게 남아있다.

.윤동주 : 平沼東柱 1942년 1월 29일

.송몽규: 宋村夢奎 1942년 2월 12일

윤동주의 성이 순 일본식 성인 ‘(히라누마)’로 된 것은 당시 윤씨들이 그렇게 창씨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다. ‘창씨개명’이란 것은 너무나도 굴욕 그 자체였다. ‘尹東柱’가 ‘平沼東柱’로 됴에 따라 ‘東柱’란 발음 역시 일본식으로 발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주’가 아닌 ‘도우쥬우’가 되었고, 이젠 강

의 시간에 출석을 불러도 “운동주”가 아닌, ‘히라누마 도우쥬우’라고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해야 했다. 그것이 창씨개명의 잔인한 실체였다.

운동주는 송몽규보다 두 주일 앞선 1월 29일에 창씨개명 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1942년 1월 29일’ 이란 날짜는 반드시 그의 시 「참회록」이 쓰인 (1942년 1월 24일)이란 날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가 창씨개명 계를 제출한 날은 「참회록」을 쓴지 닷새 만이다. 그래서 그 시기와 작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상황을 볼 때, 그가 「참회록」을 씀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각오를 일단 정리한 뒤에 연전에다 창씨개명 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걸 위해선 자신의 손으로 창씨개명 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쓰여진 것이 곧 「참회록」인 것이다. 운동주는 「참회록」을 쓴 종이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낙서’들을 적어 놓았다. “시인의 결백, 도항, 증명, 상급, 힘, 생존, 생활, 문학, 시란? 비에 금물”

당시 그가 고뇌하던 의식의 갈피들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 역사 2004)-

2) ‘독립 운동 혐의로 구속, 옥사와 관련된 자료

‘경도에 있는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이것이 일경이 운동주 관계 사건에 붙인 명칭이었다. 『특고 월보』에 실린 일경의 취조문서로 해서 운동주의 혐의가 ‘조선 독립운동’이란 것이 입증되었고, ‘중심인물은 송몽규이고 운동주가 그에 동조했고, 이 사건으로 검사국에 송환된 사람은 송몽규, 운동주, 교회욱 3인’이었다는 사건의 전모와 경찰 수사 종결의 결과가 밝혀졌다. 결국 송몽규를 중심으로 해서 치안 유지법에 저촉되는 목적을 가진 불온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고가 붙인 사건 명칭이 ‘재

경도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인 것이, 그러한 특고의 관점을 반영한다. 경찰들은 그들이 어떤 '모략 활동'을 펼칠지 몰라 도무지 마음 놓을 수가 없었다. 특고는 송몽규 및 그가 접촉하는 인물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여름방학이 닥쳐오자 그들이 귀성하기 전에 사건을 표면하기로 결정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7월 10일에 먼저 송몽규를 체포했다. 그리고 7월 14일에 관련된 자들인 운동주, 고희옥을 함께 체포했다. 1944년 3월 31일 경도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운동주를 치안유지법 제 5조에 걸어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중 1백 20일을 본형에 산입)'을 선고했다.

이들의 체포 사건에 대한 일본 특고 경찰의 공식기록이 밝혀지긴 전, 일부 운동주 연구자들이 유족들에 의한 운동주의 독립운동 증언에 대해 운동주가 비록 옥사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련 독립운동 때문이었겠느냐는 식의 회의론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그 이유는 우선 공식적인 죄명이 밝혀지지 않은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의 선고형량이 '징역 2년'이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래서 그가 일제의 과잉 단속에 불운하게 걸려들어 상투적인 혐의 아래 피동적인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할 경향이 있어왔다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 역사 2004)

3) 운동주 판결문 자료

판결

위 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강도효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좌와 같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판결 구류일수 중 1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에 있는 반도 출신 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곳의 중학교를 거쳐 경성 소재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42년 3월 내지에 도래한 후 한

때 동경 릿교대학 문학부 선과에 재학하였으나 동년 10월 이후 경도 동지사대학 문학부 선과에 옮겨 현재에 이른 자로서 어릴 때부터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사상적 문학서적 등을 탐독함과 교유의 감화 등에 의하여 일찍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는데 성장하여 내선간의 소위 차별문제에 대하여 깊이 원차의 마음을 품는 한편 아 조선 통치의 방침을 보고 조선 교유의 민족 문화를 절멸하고 조선민족의 멸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여긴 결과, 이에 조선 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시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조선민족의 현시에 있어서의 실력 또는 과거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실패의 자취를 반성하고 당면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하여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하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양양 및 민족의식의 유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대동아전쟁 발발에 직면하자 과학력에 열세한 일본의 패전을 몽상하고 그 기회를 타고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망신하여 더욱 더 그 결의를 굳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지사대학에 전학 후, 이미 같은 의도를 품고 있던 경도제국대학 문학부 학생 송몽규와 자주 회합하여 상호 독립의식의 양양을 꾀한 외에 선인 학생 손원휘충, 장성언 등에 대하여 그 민족의식의 유발에 전념하여 왔는데 그중에서도 송몽규와 1943년 4월 중순경 동인의 하숙처인 경도시 좌경구 북백천 동평정정 60번지 청수영일 맥에서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조선, 만주 등에 있어서의 조선 민족에 대한 차별, 압박의 근황을 청취한 뒤, 서로 이를 논란 공격함과 동시에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상호 비판을 가하고 그 제도는 오히려 조선 독립 실현을 위해 일대 위력을 가할 것이라고 논단하고 (중략) “국체 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지원이나 준비를 위한 목적으

로 결사를 조직하려는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 또는 선동, 선전 기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치안 유지법 제 5조에 따라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 21조에 의하여 비결 구류일수 1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문학사상, 「운동주 연구」(1995)-

4)운동주의 저항시에 대한 긍정 관점 ①

흔히들 문학에서 저항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운동주가 가진 저항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단체, 비밀, 결사 등 지하 운동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②일시적인 의무, 지원 등으로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순수한 정서적인 저항 여기서 운동주는 ①, 이나 ②의 저항 세계와는 관계없는 제 3형의 저항시인임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옥사, 그 자체가 운동주 시 문학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며 그의 순수한 저항 정신이 곧 시사적 가치기 때문이다. 시인 운동주의 저항 자세는 가장 소극적인 저항 인 동시에 시적으로는 매우 보람된 저항이었다. 진정 영혼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아는 순수한 고뇌의 절규가 곧 보람 있는 ‘순수 저항시’가 된다. 이런 시는 누구를 선동하지는 않으나 감명을 주며, 울리지는 않으나 가슴을 찌르며, 취하게는 않으나 각성제가 된다. 운동주의 시는 간도 조선인의 정사와 식민지 조선인의 서정을 노래한 것으로 그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

-임현영 「순수한 고뇌의 절규」(운동주 연구, 문학사상, 1995)

긍정 관점②

일제 말의 암흑기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현실로부터 한 발짝도 도피

하는 일 없이 자기와 시대를 응시하면서, 민족의 긍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냈기에 특히 일제 통치에 영합하여 민족 말살 정책에 가담한 문학과 시인이 많았던 당시에 최후까지 민족의 글 한글로 주옥같은 시를 계속해서 썼기에 민족 시인으로 경애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동시에 운동주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제하에서 금지되었던 한글로 계속해서 시를 써온 그 문학 행위 자체가 바로 저항이라고 본 것이다. 운동주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저항 시인인 것이다. 즉, 일제말의 암흑기에 처하여 ‘민족의 긍지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시로써, 한글로 시를 쓰는 행위로써 일제에 저항했던 저항 시인인 것이다. 이렇듯 운동주의 저항의 몸짓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이 합치되면서 점화되어 눈부신 불꽃으로 타올랐던 것이다.

-김우규 「운동주를 보는 일본인의 시각: 속죄와 화해를 바라는 양심의 소리」

5)운동주의 저항시에 대한 반대 관점 ①

작품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그 내용이나 작가 의식만을 지적하여 운동주의 시를 저항시로 단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작품의 내용이 아무리 저항적이어도 그 저항해야 될 시대가 지나가 버린 다음에 발표된 시일 경우, 그것은 한낱 사회학적 또는 역사적 기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딪혀야 될 시대적 상황으로서의 일제가 패망해 버린 뒤에 발표된 저항시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코 저항시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시를 쓴 시인 자신의 인간적 삶이 저항 인이었을 때 바로 그러한 이유로써 그가 쓴 시가 저항시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생으로서의 시인과 섞어진 작품과

는 별개의 문제다. 가령 운동주의 일생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였다고 해서, 그의 모든 시를 저항시로 본다는 것은 착각이다. 저항시의 규명은 어디까지나 작품 그 자체와 그것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나는 저항한다”고 외친들 그것이 저항일 수는 없다. 시의 내용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딪침 즉 참여와 폭로, 비판, 선동 그리고 동시에 투쟁이어야 한다. 또한 운동주가 일본의 감옥에서 옥사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에서 오는 의도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범하는 오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 시와 운동주의 옥사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운동주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작품과 인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작품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오세영 「운동주 시는 저항시인가?」(운동주 연구, 문학사상, 1995)-

반대 관점②

철수는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포악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용기가 없어 다른 학생들처럼 전면에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를 못했다. 그 대신 밤늦게 일기장에다 정권의 포악성을 비난하는 낙서를 했다. 군사 정권 물러가라! 광주 학살 원흉을 처단하라! 민주 정부 수립하자! 그의 일기장에 써 있는 글들이다. 그는 간혹 화장실 벽에다가도 낙서를 했다. 드디어 온 국민의 노력으로 군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 보장한다고 한다. 철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 주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의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 일기장에는 나의 투쟁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따라서 나는 그 어느 누구 못지않은 투사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는 투철한 저항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김중신 「문학과 삶의 만남」 중 생각해볼 문제

부록3. 비판적 글쓰기 자료

6)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운동주 이야기

①운동주 시는 내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항 시인’ 운동주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꾀했다 하여 붙들려가서 일본의 패배와 조선의 해방을 목전에 둔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세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한글로 시를 쓰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리라 맹세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운동주를 죽인 것은 일본인과 일본 정부였습니다. ‘여행’ 속에서 연행됐던 사실을 증언한 김종갑 씨를 근무처인 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17년이나 보호해준 내 친구, 가네사키 히카리 씨는 말합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열여섯 살이 된 아이들을 죽이는 가해자의 편에 우리는 지금도 서 있지 않는가 하고. 납골 단지에 담기지 못하고 하얀 재가 되어버린 운동주의 뼈는 고향으로 돌아가다 아버지의 손으로 현해탄에 뿌려졌다고 그 동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현해탄에서 기타큐슈 와카마쓰의 백사장에 떠밀려 와서 묘비도 없이 개펄에 묻혀버린 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치쿠보와 오무타의 땅 속 깊은 곳에서 죽어간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에 못 이겨 멀리 섬으로 도망치려고 바다로 나갔다가 죽은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9일동안의 여행길은 일제에 항거하다가, 아니 어찌지도 못하고 죽어간 이름 없는 ‘운동주들’의 뼈를 밟고 걷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무라 강제수용소의 허물어진 흙담벼락에서 본 것은 ‘한마음... 산도 바다도 보인다... 기어코 해내리라... 바른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훈 씨는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젊은 그대들이 떠맡고 나갈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서로 말은 몰라도 한마음으로 진실한 시대를 열어갑시다” 하고 젊은이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기에 ‘여행’의 소년은 “모른다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응수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한’ 그러한 ‘봄’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름 없이 죽어간 한국인, 조선인에게 바칩니다.

-이누가이 미쓰히로 「이름도 없는 운동주와 함께 있고 싶어」 중, 가도 게이지의 글

② 어딘가 멀리서

떠들썩한 웃음소리

노래

황홀하게 넋을 잃고

어느새 포박되었다.

속담의 보고다.

해학의 숲이다.

큰 사전을 베개 삼아

선잠을 들 때면

<당신이 배우는 법이 느리요>라고

운동주에게서 상냥한

나무람을 듣는다.
정말 늦었다.
그러나 무엇이랴도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려다.
젊은 시인 윤동주
1945년 2월
북강 형무소에서 옥사

그것은 당신들에게는 광복절
우리에게는 항복절의 8월 15일
거슬러 올라가
겨우 반년 전
아직 학생복을 입은 채
숨결이 얼어붙은
당신 눈동자 그 눈부신
(... 하략...)

-이바라키 노리코 시 「윤동주 찬가」중-

7) 송몽규와 윤동주의 최후 죽음에 관한 자료

후배 장덕순 교수는 송몽규와 윤동주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의 성격은 정반대였다. 동주의 성격이 과묵하고 내성적인 데 반해, 몽규는 남성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에다 다면이었다. 동주가 고요한 사람이면서도 스포츠를 즐긴 것에 반해 몽규는 활동적이고 잘 돌아다니면서도 운동은 하지 않았다. 동주가 시를 전공한 데 비해 몽규는 소설 쪽으로, 그가 쓴 소설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다. 그렇게 성격이 정반대이면서도 사이는 펍 좋았다. 친척인 점 외에 서로의 교양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이 연전에서 사귄 친구들은 모두 같은 그룹이었다. (중략)

북강형무소 채소 중에 송몽규는 단지 한 차례의 면회를 했다. 운동주의 시체를 찾으려간 운영석과 운영춘 두 사람이 “죽은 동주는 후에 찾기로 하고 산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 겠다” 하여 송몽규의 면회 신청을 했을 때이다. 그것이 그가 경도에서 1943년 7월 10일에 특고에게 체포된 이래 최초로 아는 사람과 대면한 기회였다. 운영춘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송몽규는 ‘반쯤 깨진 안경을 눈에 걸친’ 모습이었고, ‘피골이 상접이라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징역살이 끝에 운동주는 드디어 일제의 감옥 안에서 절명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1945년 2월 16일 오전 3시 36분, 그의 나이 이제 겨우 만 27세 2개월 남짓, 그가 일제의 특고 경찰에게 체포된 때로부터 19개월 2일이었고 ‘나는 나의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라고 탄식한 때로부터 불과 3년 1개월 만이었다 그의 운명을 지켜보았던 젊은 일본인 간수는 운동주가 외마디 소리를 높게 이르면서 운명하더라고 유족들에게 전했다.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 역사 2004)-

8)친일 시 감상

<오장(伍長) 마쓰이 송가(頌歌)>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伍長)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印氏)의 둘째 아들 스물한 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귀국대원

귀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왔느니

우리 숨 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별이는 고향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 곳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셋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신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질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서정주, 「오장 마쓰이 송가」 (매일신보, 1944)

9) 운동주 묘비명

아아, 고 시인 윤근 동주는 본관이 파평이다. 어릴 때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화룡현립 제 1교 고등과에 들어가 배웠고, 용정 은진중학에서 3년을 배운 뒤 평양 숭실 중학에 전학하여 학업을 쌓으며 1년을 보냈다. 다시 돌아와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광명학원 중하부를 졸업하고, 1938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여 4년 겨울을 보내고 졸업했다. 공부 이미 이루었어도 그 뜻 오히려 남아서 다음 해 4월에 책을 짊어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 동지사대학 문학부에서 진리를 갈고 닦았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배움의 바다에 파도 일어 몸이 자유를 잃으면서 배움에 힘쓰던 생활 변하여 조롱에 갇힌 새의 처지가 되었고, 거기에 병까지 더하여 1956년 2월 16일에 운명하니 그때 나이 스물아홉, 그 재질 가히 당세에 쓰일만하여 시로써 장차 사회에 울려 퍼질 만했는데, 춘풍 무정하여 꽃이 피고도 열매 맺지 못하니, 아아 아깝도다. 그는 하현 당조의 손자이며 영석 선생의 아들

로서 명민하여 배우기를 즐긴데다 신시를 지어 작품이 많았으니 그 필명 동주(童舟)라 했다.

1945년 6월 14일

해사 김석관 짓고 쓰다. 아우 일주, 광주 삼가 세우다

10)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이수현

일본에 유학온 한국 대학생이 도쿄(東京) 전철역 구내에서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7시20분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지하철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사카모토 세이코(37)씨가 친구와 함께 플랫폼에서 술을 마시다 발이 미끄러져 철로에 떨어졌다. 만취해서인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역에는 전차가 곧 도착한다는 벨이 울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건너편 플랫폼에서 한 젊은이가 철로로 뛰어 들었다. 그는 사카모토씨를 붙잡고 일으키려 했다. 그 때 한 사람이 더 내려와 거들었다. 바로 그 순간 전차가 진입했고, 셋은 함께 전차에 치여 숨졌다.

맨 먼저 건너편 플랫폼에서 뛰어든 젊은이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26·고려대 무역과 4년 휴학)씨였다. 당시 이씨는 아르바이트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일을 끝낸 후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전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또 한 사람은 일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술 취한 승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며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크게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신오쿠보역 근처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전철역에서 사고를 당하기 5분 전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이제 전철에 탄다. 30분 후면 집에 도착한다”고 전했는데 이것이 세상에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이씨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를 휴학하고 99년 11월 일본에 와 지난해 1월 도쿄에 있는 ‘아카몬카이 일본어학교’에 입학했다. 일본어 학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한 그는 올 여름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고려대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평소 정의감이 강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동료 유학생들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어학교에 제출한 입학 이유서에서 “일본 유학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회사에 입사해 두 나라의 교역 부문에서 확실한 1인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동생 "가난한 사람 보면 옷 벗어줘"

한편 부산 연제구 연산9동 D아파트 이씨의 집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성대씨(63)와 어머니 신윤찬씨(53)가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일본어학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한 뒤 27일 오후 3시반 비행기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여동생 이수진씨(25·회사원)는 “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줘 부모님께 야단을 맞곤 했다”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을 구하려다 숨진 오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이수현씨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my.dreamwiz.com/union->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 교육인적자원부. (1997).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구인환 (1999). 문학교수, 학습방법론. 삼지원.
- 권영민 (1995).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 김대행 외 (1999).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찬 (2002). 시로 읽는 세상. 이슈투데이.
- 김윤식 (1984).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 김윤식 외 (2006). 디딤돌 문학. 디딤돌 출판사.
- 김인창 편역 (1989). 에로스와 문명. 나남.
- 김중신 (2003). 문학과 삶의 만남. 소명출판사.
- 김중신 (2003). 한국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 김현자 (2005). 아침빛 길의 시학. 소명출판사.
- 김홍규 (1999). 한국현대시를 찾아서. 푸른 나무.
- 류양선 (2005). 한국 현대 문학의 탐색. 역락.
- 마광수 (1984). 윤동주 연구. 정음사.
- 박인기 외 (2005). 문학을 통한 교육.
- 선주원 (2003). 시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소래섭 외 (2003). 관악한 수재들의 문학캠프. 살림.
- 송우혜 (2004). 윤동주 평전. 푸른 역사.
- 신 진 (2003). 한국현대시 읽기. 동아대학교 출판부.
- 신현재 외 (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 오세영 (1998).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왕빈 (1980).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우리어문학회 (2001). 한국문학과 심리주의. 국학자료원 .

윤동주 (2004). 원본대조 윤동주 전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건청 (1981).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문학세계사.

이건청 (1994). 윤동주: 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 건국대학교 출판부.

정기철 (2001).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최영한 (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사.

한샘문학교육연구회 (2006). 한샘종합 문학. 한샘출판사.

한영옥 (1999).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한용환 (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루이스 브레거 (1998).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대 출판부.

프로이트 (1973). 예술론. 백조출판사.

2. 논문 및 잡지

강경희 (2005). 아름다운 혼의 눈물. 윤동주 60주기 특집-윤동주 시 다시 읽는다. 시와시학 봄. 통권 57호

경규진 (1993). 반응 중심의 문학교육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권경아 (2005). 「병원」에 나타난 병적 징후로서의 세계. 윤동주 60주기 특집-윤동주 시 다시 읽는다. 시와시학 봄. 통권 57호

권명숙 (1994). 시지도 연구: 윤동주 지음 <서시>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세례 (2005). 윤동주 시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열규 (1964). *윤동주론*. 국어국문학 27집.
- 김용진 (2005). *기독교 문학과 문학교육연구: 윤동주와 김현승 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식 (1970). *유년시절을 그린 두 개의 소설*. 사상계 통권 제 203권.
- 김춘성 (2005). *중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미영 (1992).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민우 (2003). *현대시교육과 성장시*. 국어교육학회 제 24회 학술발표대회.
- 박민영 (2000). *1930년대 시의 상상력 연구: 정지용, 백석, 윤동주 시의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 박수경 (2003). *현대시 교육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범 (2000). *수행평가를 통한 시 교육의 의의와 실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의상 (1993). *윤동주 시의 사회심리학적 논거-자기화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박희진 (2004). *반응활성화를 위한 문학 토의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염창권 (1994). *한국현대시의 공간구조와 교육적 적용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유재천 (2000). *윤동주의 시 <별헤는 밤>의 비유 구조*. 국제언어인문학회.
- 이정금 (2005).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고찰*.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현 (2001). 인성계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황직 (2002).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연구: 정인보, 함석헌, 백석, 운동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동찬 (1999). 운동주 시 교육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린다 (2005). 운동주 시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정 (2005). 이상과 운동주 비교 연구-자아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숙자 (1991).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아탐색 프로그램 구안.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영 (2000). 이청준의 예술가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하윤정 (2005). 교육연극을 활용한 시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경혜 (2003).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Dongju Yoon's poems - from the viewpoint of a initiation poem

Hana Ki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poet Dongju Yoon's works effectively,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a plan for promoting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in an educational field based on the existing academic research results from his poems. Its purpose is to seek how to learn in which learners can have literary ability themselves in connection of poem education with thei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centering on 'a learner, activity, and performance' which is dealt with in the 7th curriculum.

His poems have their individual dates of versification, which show that he began to compose a poem from a growth period when his self began to be formed. In particular, he who had to live in the 1930s and 1940s when Japanese imperialism brought the most severe pressure on Korea had to experience the external conflict

that he belonged to colonial people and the internal conflict from his own moral belief in how he should live in the era and from the agony about self-maturity. He pursued personal self-realization by creating poetic works including the function as a rite of passage through expressing the conflicts in his own works. Thus, his poems can be said to be the initiation poems of depicting a process of his internal maturity, which will help students in the stage of self-formation to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modern poems with emotional experience.

The objective for educating the Korean language in the curriculum includes the passage "We foster human beings who cultivat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various men and the world through literature and who internalize human value". It shows that literary education is one plan for socialization process of internalizing personal literature and fostering social activity. Thus, poem education should leadingly promote learners' literary ability, and advance to the direction of cultivating self-reflection and self-formation in literary experience through a poem which is associated with their lives. His initiation poem aiming at its objective of "seeking the self and living together" and at personal ethic consciousness broadens the awareness of others and the society with the cultivation of self-recognition, and much helps to form mature character. Thus, from the viewpoint of 'a initiation poem' his works should present a teaching-learning principle including the elements of humanity

education such as common thought and cooperation process and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including respect for the self or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Presupposing it I studied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his poems dividing them into the following three. The first one is a teaching-learning plan centering on the aspect of socialization process as the motive of 'looking for a father', in which I discussed the resistance in the poems. The second is a curriculum centering on learners as the motive of 'discovering a way', in which I analyzed intertextuality with a plan for performing an educational play with 'a way' as material. The final one is a plan for educating self-identity at the aspect of humanity education as the motive of 'awareness of sex and love, seeking identity'. Now, I try to explor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his poems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Korean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